

# PARKLAND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부산 대표 향토기업 파크랜드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PARKLAND CABRINI J.HASS PRELIN PL SPORTS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옷의 가치, (주)파크랜드가 생각하는 진정한 패션입니다

부산체육 2016 09+10 통권 3호

2016 부산체육 슬로건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의 체육중흥을 위하여

# 부산체육

2016 09+10 | 통권 3호  
[www.sports.busan.kr](http://www.sports.busan.kr)



 부산광역시체육회



# BUSAN

54만개 일자리 창출  
월드엑스포 유치는  
약 5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40,000  
Jobs

# EXPO

49  
Million  
Visitors

5천만 관람객 유치.  
전세계 및 국내 5천만  
관람객이 우리나라  
부산을 방문합니다.



# 2030

49  
Million  
Visitors

49조원 경제효과,  
엑스포 유치는 약 49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지상최대규모의 축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손꼽을 최대규모의  
축제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조금만 다가서면 보입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30,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먼 이야기 많은 아닙니다.  
대규모 경제 상승효과와 대폭 늘어나는 일자리, 5천만 관람객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 엑스포를  
여기 부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BUSAN  
WORLD  
EXPO  
2030



54만개 일자리 창출  
엑스포 유치는 약 5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천만 관람객 유치  
전세계 및 국내 5천만 관람객이  
우리나라 부산을 방문합니다.



지상최대규모 축제  
국내를 물론, 해외에서도 손꼽을  
최대규모의 축제입니다.



49조원 경제효과  
엑스포 유치는 약 49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6개월 행사기간  
6개월의 장기 행사를 통한  
충분효과로 부산은 세계속의  
유명 관광도시가 될 것 입니다.



08



32



54



64

## CONTENTS

### People & People

- 04 파워 인터뷰\_백종현 시의회 의장
- 08 이달의 인터뷰\_송미현 총감독(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
- 12 이달의 칼럼\_부산체육고등학교 진영민 교사

### 기획특집\_제97회 전국체육대회

- 14 스포츠로 감동하는 화합의 큰잔치
- 18 생생 가이드 & 현장의 목소리
- 28 경기장 현황 및 경기일정

### Global Olympic\_2016 리우 올림픽

- 32 뜨거운 열정의 시간, 세계 속의 부산

### 부산체육\_Panorama

- 40 체육진단\_체육발전방향 좌담(KBS 부산 일요진단)
- 42 zoom\_부산광역시체육회 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 43 국제교류\_부산·후쿠오카 청소년 스포츠교류대회
- 44 현장 속으로\_클럽대학 청소년체육대회
- 48 스포츠 토크\_㉸골핑 빙상실업팀 창단식
- 50 스페셜 리포트\_부산체육고등학교 격려 방문
- 52 歴史 속으로\_이남엽 북구국민체육센터장 퇴직기념식
- 54 물살을 가르다\_제4회 어린이 왕중왕 수영챌린지대회
- 56 스쿨 오브 樂\_1) 청소년 아외 스포츠 교실  
2) 청소년 스포츠 클라이밍 교실  
3) 레크리에이션 교실

### News Briefing

- 59 체육정책\_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 Information

- 62 건강 플러스\_자외선에 지친 피부 되살리는 SOS

### Healing

- 64 힐링 레시피\_잘 먹으면 약이 되는 슈퍼푸드, 토마토

부산체육 2016 09+10 | 통권 3호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의 체육중흥을 위하여

발행일 2016. 9. 7. (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3호) 발행인 서병수 편집인 송미현  
편집위원 김정렬(부산광역시소통기획담당관), 안창규(부산광역시체육진흥과장), 손준규(부산교육대학교 교수), 김주혁(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우석봉(부산발전연구원 위원)  
편집취재 이상재, 서원택, 임성하, 하나근, 김민지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부산광역시체육회관 Tel 051. 500. 1300 / 500. 7900 Fax 051. 500. 1309 / 505. 6306 www.sports.busan.kr  
부산국민체육센터 Tel 051. 243. 5959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로 150 북구국민체육센터 Tel 051. 365. 7070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755번지  
디자인·인쇄 (주)세영애드인 Tel 051. 636. 758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9-11 ※ 이 간행물은 부산광역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 제 7대 부산광역시의회 백종헌 의장

## 부산 발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1991년 출범한 부산광역시의회는 올해로 개원 25주년을 맞이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부산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백종헌 의장에게 건강한 부산시가 되기 위해

시민과 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 시민 앞에 당당한 의회를 약속하다

현재 제7대 부산시의회에는 모두 47명의 의원이 있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공식적으로는 의사 진행, 회의 질서유지, 의회 사무처 감독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더 깊이 살펴보면 전반적인 의회운영 방향 설정부터 의원들 간의 의견 조율이나 집행부와와의 소통,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 촉진 등에 이르기 까지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야 하는 자리다.

직접 두루두루 살펴야 할 일이 그만큼 많아진 지금, 백종헌 의장의 두 어깨도 무거워졌다. 후반기 의회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오른 만큼 무엇보다 '원내 화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그는 '언제나 한 발씩 양보하고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태도만이 부산시의회가 참다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다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저는 후반기 의회를 개원하는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께 의욕을 앞세우기보다 원칙과 순리를 지키며 강인함 속에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푸른 대나무처럼 당당한 의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우리 의회가 앞장서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주요 현안사업들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백종헌 의장은 지난 14년간 시의회에서만 4선을 했고, 상임위원장을 거쳐 부의장만 두 번을 역임하였으며 전반기에는 원내대표로서 꾸준히 경험과 실력을 쌓았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허투루 한 순간은 결코 없었다고 확신하는 그는 '준비된 의장'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매 순간 많은 준비와 고민을 해 왔다. 모든 순간이 변화의 변곡점인 이 시대에, 변화의 격랑은 더욱 거세지고 속도도 훨씬 빨라지기에 백종헌 의장은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졌다.

"물론 부족합니다만, 아직 저에게 해낸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것입니다. 지금으로선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앞으로 의회를 잘 이끄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만이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보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도 꼭 필요하다. 그는 시민의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은 의회에 무엇보다 든든한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

저는 이번 하반기 의회가 시민과 함께 부산을 바꾸고, 우리 부산이 현재를 넘어 미래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디딤돌을 마련한 의회로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호모 헉드레드 시대  
건강이 최고의 재산

바쁜 의정활동 때문에 따로 운동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오히려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나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백종헌 의장. 특별히 보약을 챙겨 먹기보다는 '잘 먹고 잘 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건강법으로 꼽았다.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건강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요즘은 의장으로서 여기저기서 찾으시는 분도 많고, 지역구 일도 챙겨야 하다 보니 따로 운동이 필요 없을 정도지만 이럴 때일수록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강한 체력의 바탕에는 젊어서부터 꾸준히 해 온 태권도가 있었다. 그는 지금도 태권도야말로 최고의 스포츠라고 여긴다. 태권도는 단지 승패를 가르는 스포츠가 아니며, 오직 자신만을 연마하는 무예도 아니다. 체(體)·인(認)·지(至)로 대표되는 태권도 정신은 백절불굴의 용기와 함께 상대에 대한 예의(禮儀)를 다하는 상생의 정신이다. 이러한 태권도 정신은 기업을 경영할 때나 정치를 할 때나 백종헌 의장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

부산지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시의회에서도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한다. 생활체육은 건강하게 살아갈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는 보편적 복지이자 의료비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투자라는 생각에서다.

“평균수명이 100세에 도달하는 ‘호모 헉드레드(Homo hundred)’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100세 인생’이란 노래가 폭발적 인기를 끈 것도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 복지 등 사회 각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체육은 100세 시대의 기초체력을 키워줄 핵심 과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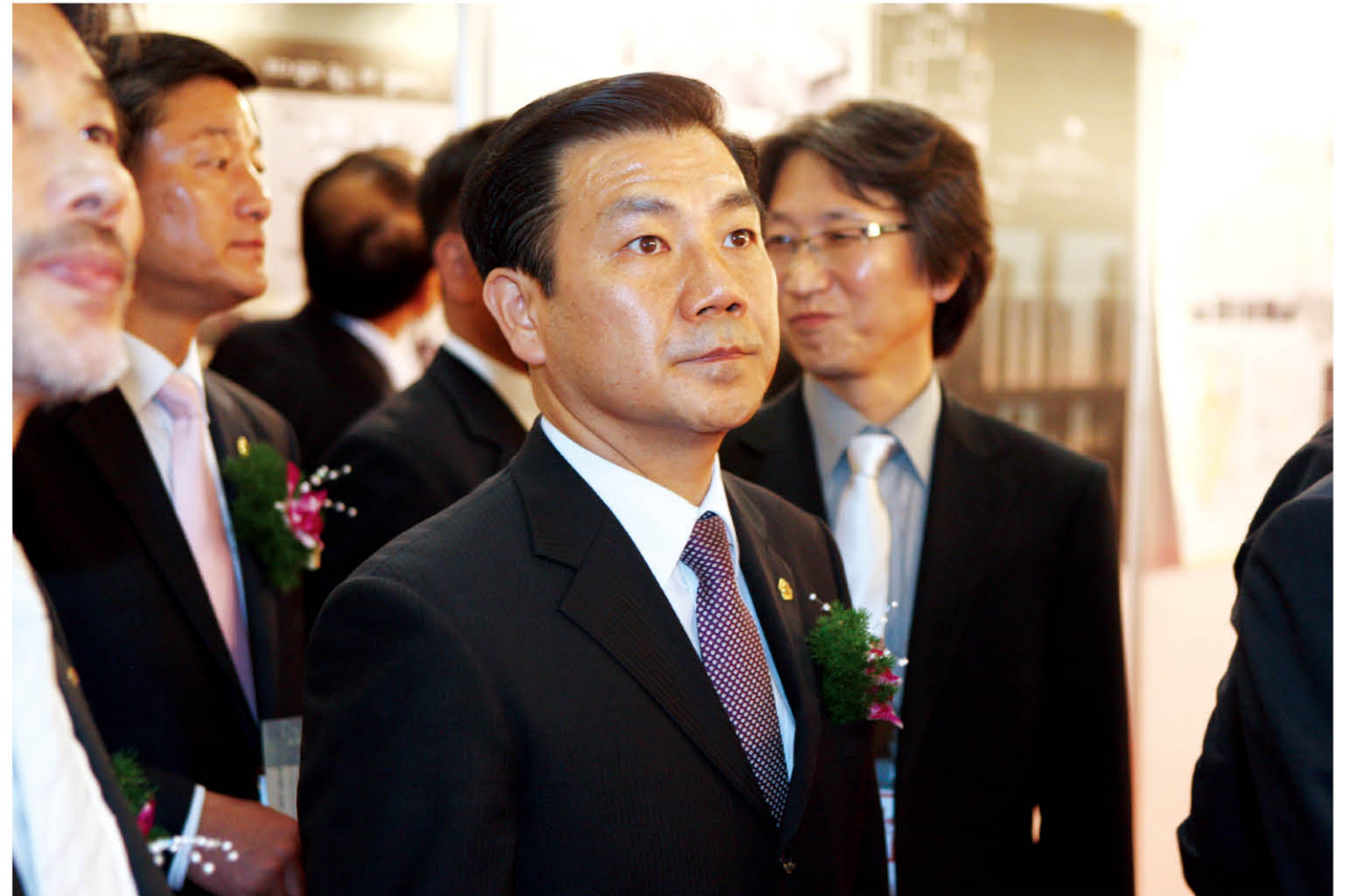
과거 체육이 엘리트 스포츠인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왔다면 이제는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생활체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건강한 삶’이라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강조되고 있다. 생활체육이 사회 안전망으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생활의 한 부분처럼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지다. 그래야만 생활체육을 통해 엘리트 선수가 길러지고, 은퇴한 엘리트 체육인들은 자신의 스포츠 재능을 일반 시민들에게 전수해 풀뿌리 체육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등 생활체육의 활력이 엘리트 체육의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부산시체육회,  
스포츠 선진도시로  
도약할 계기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신의 국가를 대표해 출전한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 우리나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조화를 추구하는 스포츠 시스템의 선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백종헌 의장은 부산시체육회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생활 체육 중심의 생활체육회와 엘리트 체육을 담당해 온 시체육회가 하나로 뭉쳐 새로운 ‘부산시체육회’라는 이름으로 거듭난 만큼 우리 부산 체육계가 ‘엘리트 스포츠’에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강화를 함께 추구하는 진정한 ‘스포츠 선진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흔히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마라톤처럼 인생에서도 자신의 기량과 코스 환경 등을 감안해 구간별 달리기 전략을 철저히 짜야 하고, 초반에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않고 힘을 비축해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며 꾸준히 노력해야만 막판 스퍼트를 내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해 나가되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승부처가 나타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혼자일 때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빨리 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부산시체육회와 부산시의회가 지향하는 ‘건강한 삶’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SONG  
MI  
HYUN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충남 일원에서 열리게 될 '제9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부산 체육인들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준비에 여념이 없다. 부산 선수단을 이끌 송미현 총감독(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을 만나 전국체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각오를 들어봤다.

## 부산 선수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송미현 총감독 (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

### 전국 체육인과 시민의 어울마당

해마다 가을철에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는 우리나라의 체육 진흥과 엘리트 체육인 발굴·육성을 위한 종합 스포츠 행사다. 192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97회 대회로 이어져 오고 있다. 체육대회 개최는 선진화된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행사로 연계하여, 체육인들의 사기향상과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로 점차 발전해 왔다.

대회는 남녀별·고등부·대학부·일반부로 나누어 4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도의 종합득점제로 순위를 정하여 결과에 따라 종합 시상이 이루어진다. 경기종목별로 1위~3위에게 시상하며, 개인 및 단체 경기의 1위~3위에게 금·은·동메달이 돌아간다. 그 외 모범선수단상, 격려상, 최우수선수상이 수여된다.

### 값진 노력이 모여 결실 거두기를 기대

시체육회는 통합에 의한 환경변화에 따른 전환점을 맞이하여 '제97회 전국체육대회'의 지원에 매진하고 있다.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더욱 좋은 성과로 결실을 보기 위해 노력이 한창이다. 송미현 총감독은 "전국체육대회는 부산 체육인에게 있어 가장 값진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이번 체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새벽 훈련부터 시작하여 오전·오후의 강도 높은 훈련, 그리고 심야 훈련까지... 순간순간의 노력이 모여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종합 7위를 하였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성적이 나올 수 있기를 선수들과 한마음으로 뛰겠습니다."라며 부산 선수단의 굳건한 결의를 강조했다.



### 인재 발굴·육성이 가장 큰 과제

시체육회는 2011년부터 5년 동안 글로벌 스타를 발굴하고 육성해 왔다. 부산에 재학 중인 중·고등부 선수 중 기량이 뛰어난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부산을 대표할 세계적인 선수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자격요건은 현재 국가대표이거나, 아시아 지역급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 부산대표 선수로 전국 체전 및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이다. 연간 5명에게 1천만 원씩 훈련비로 지원한다. 이로써 선수 및 학부모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부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글로벌 스타로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실업팀 창단 또한 체육의 통합에 따른 선진 체육 환경의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부산 출신 우수선수의 타 시도 유출 방지와 체육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꿈나무 선수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자 일반부팀 창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골든블루 정구팀 창단을 시작으로 올해 초 ㈜새빛 파트너스 검도팀, 부산공동어시장 배구팀을 창단했다. 또한 지난 7월 ㈜콜핑 빙상실업팀을 창단하는 등 시체육회는 건설한 기업팀 창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송미현 총감독은 "이제 우리는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해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인재 양성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때"라며 인재 발굴과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선전기대 종목

선전예상 팀은 전국체전 4연패의 위업에 도전하는 교통공사 축구팀, 탄탄한 전력의 환경공단과 부산체고의 세팍타크로팀, 동의대와 부산외대 배드민턴팀, 부산시청 펜싱팀이 되겠다. 선전예상 선수로는 역도의 손영희 선수, 사격의 진중오 선수, 수영의 우하람·최규웅 선수, 사이클의 이혜진 선수, 핀수영의 장예솔, 이동진 선수가 있다.



“정상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다 보면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선수단 향한 격려가 큰 힘

부산선수단을 위한 격려 방문도 이어졌다. 서병수 시체육회장은 부산체고 등 훈련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시체육회의 10개 위원회에서도 선수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나섰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재정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스포츠교류위원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임원심의위원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로 구성됐다.

특히 원로체육인 또한 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이 중치 부산원로체육인회 회장, 서경애 부산시유도회 부회장, 정동규 부산체육고등학교 前교장, 안영환 부산시유도회 감사를 비롯하여 많은 원로체육인들이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격려를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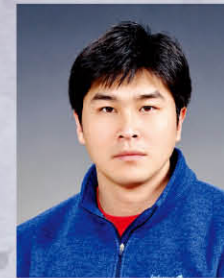
송미현 총감독은 "오는 9월 12일에는 부산시청에서 전국체전 결단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의 사기를 제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으며, 올해 목표인 6위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질 것이다. 많은 걸림돌로 인하여 쉽지는 않겠지만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정상을 향해 가는 우직한 소처럼 두뼉두뼉 걸어갈 것이다. 정상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다 보면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굳은 의지를 다졌다.



# 진정한 인내와 노력으로 전국체전 준비에 필승 다진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작되며,  
할 만큼 다 해본 순간이  
진정한 노력의  
시작이다.



부산체육고등학교  
진영민 교사

전 세계인의 축제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체육행사 중 하나인 올림픽이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됐다. 많은 이들이 밤잠을 설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출전한 선수들을 격려하며 응원하는 뉴스를 볼 때면 “스포츠만큼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지난 2002년 월드컵 때를 돌이켜본다.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다 함께 외치던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감동과 전율이 다시금 떠오른다.

각 시·도에서는 우리나라 체육의 가장 큰 축제인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35도가 넘는 불볕더위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근무 중인 부산체육고등학교에서도 예외 없이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여 학생 선수들이 훈련에 임하고 있다.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출전하고자 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종목에 최고의 선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입학하여 훈련에 임하는 학생들을 볼 때면 안쓰러움과 대견함이 동시에 느껴진다. 새벽 5시 45분 음악 소리와 함께 떠지지 않는 눈을 뜨며 새벽 운동을 하러 가는 모습, 훈련이 끝난 후 식사를 할 때 천진난만한 모습, 지도자선생님들과 기합과 소리를 지르며 훈련에 열중하는 모습, 저녁 9시가 다 되어 훈련이 끝난 뒤 초초가 되어 기숙사로 돌아오는 모습 등 그 어떠한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 부산의 아니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이 밝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부산체고는 강정일 교장선생님의 경영철학인 ‘선례후학’을 바탕으로 약 70여 명의 감독·지도자가 근무하고 있다. 육상부터 근대5종까지 총 23개의 운동부에는 약 300여 명의 학생 선수들이 ‘창의적 사고와 너그러움의 품성’을 바탕으로 명예를 존중하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체육인 육성이라는 교육목표로 다가올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고자 힘쓰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동계강화훈련을 시작하여 금년 4월 경기도 일대에서 개최된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는 금 19개, 은 21개, 동 14개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최근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매년 6,000점이 넘는 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부산광역시 고등부 득점의 50%가 넘는 수치이며, 부산광역시 전체 15% 이상의 성적으로 부산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7월부터 1차 하계 강화훈련, 8월 2차 하계 강화훈련기간을 거쳐 각종 전국대회 출전과 전지훈련을 통해 기량을 점검하고 있으며, 전국체전을 앞두고 컨디션 회복 및 시합 일정에 맞춘 훈련으로 다가올 시합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작되며, 할 만큼 다 해본 순간이 진정한 노력의 시작이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내용을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을 우리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다.

할 수 있다는 믿음 끊임없는 갈망  
지속된 노력으로 하늘을 울려라  
40년 전통의 부산체고,  
그 멋진 나래를 충남에서 펼치자!

앞으로 약 60여 일 뒤에 열릴 제9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운동장에 붙어 있는 대형 현수막을 보며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선전을 기대해 본다.



스포츠로 감동하는 화합의 큰 잔치

# 모두가 주인공이 될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제97회 전국체육대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선수들의 훈련장 분위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회 개최지인 충청남도 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후상으로는 사계절이 뚜렷하 고 기온이 온화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힌다. 뜨거운 열기에 굴하지 않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부산선수단을 위해 전국체전의 이모저모 에 대해 알아보자.

## 품어라 행복충남, 뛰어라 대한민국

오는 10월 7일(금)부터 10월 13일(목)까지 7일간 개최되는 ‘제97회 전국체육 대회’는 주 개최지인 아산시를 비롯하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막을 올린 다. 이번 전국체전은 선수는 물론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문화축제로 정하 여 ‘함께 뛰는 충남체전 국민화합 감동체전’이라는 표어가 선정됐다.

스포츠와 문화·역사·관광이 어우러지는 문화체전, 기존 자원을 최대 활용하 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경제체전, 도민이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준비하는 참여체전, 선수와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안전체전 등 4대 목표 를 설정했다. 또 전국체전의 비전은 ‘선수는 물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문 화축제’로 선정됐다.

‘품어라 행복충남, 뛰어라 대한민국’을 추구하는 이번 체전은 지난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충남에서 열린다. 17개 시·도에서 총 47개 종목에 3만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체전 경기장은 111개를 선정하고, 쾌적한 경기장 제 공으로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97th NATIONAL SPORTS FESTIVAL



# 97th NATIONAL SPORTS FESTIVAL



### 엠블럼

백제의 대표 유산인 백제금동대향로 상단에 위치한 봉황의 날개와 전국 체육인의 뜨거운 열정과 젊은 에너지를 비상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색상은 뜨거운 열정의 Red, 따뜻한 충남도민 마음의 Red Pink, 백제의 찬란한 문화유산의 Gold, 생동감 있는 젊은 느낌의 Orange로 하였다. 전국체전이 개최된 이듬해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렸던 과거와 달리 2015년부터 양 대회가 같은 시기에 연이어 개최됨에 따라 통합 엠블럼이 제작됐다.

### 마스코트



충청남도 공식 마스코트인 '충청이와 충나미'가 백제를 상징하는 인동당초 무늬가 새겨진 성화봉을 함께 들고 있는 모습으로 제작하고 전 국민이 화합하는 충남에서 백제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체전이 표현됐다. 충청이는 백제 금동대향로의 이미지를 조형화하였고, 충나미는 백제 왕비의 금제관 이미지를 조형화한 것이다.

### 성공 개최 위한 준비에 구슬땀

**첫 번째, 대회 집행·조직위원회 구성**  
충청남도는 체전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작년 5월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경찰청, 체육회 등 도 단위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1실 18부 72팀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했다. 팀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지휘부가 주재하는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빈틈없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매주 정무부지사 주재로 '주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고 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운영**  
체전의 성공 개최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 및 관광 안내, 교통·주차질서 등 33개 분야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경기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철저한 사전 교육과 정확한 임무 부여, 세련된 유니폼 지급을 통해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세 번째, 청결·친절·질서의 유도**  
'깨끗한 충남 만들기'와 연계하여 도민·시민단체의 청결활동에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청소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경기장별 임시 쓰레기 수거함 180개를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선수단과 방문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31개소의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고, 화장실 관리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청결한 화장실을 만들고 있다.

**네 번째, 차별화된 개·폐회식 진행**  
전국체전의 서막을 알리는 개회식은 10월 7일(금)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우리는 행복으

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콘셉트 아래 세련되고 정감 있는 충남 이미지 구현을 목표로 두고 있다. 특히 지역 첨단산업과 예술자원을 바탕으로 미디어 연출을 활용, 디스플레이어와 사물인터넷 등 참신하면서도 충남의 정서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관람객 대합창, 선수단과 자원봉사자의 퍼포먼스 등 참여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성화 최초 '동시 봉송'**  
시·군별로 이색 봉송 구간을 1곳 이상 배치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가 담긴 특색 있는 성화봉송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순신 장군 출정식, 유관순 열사 퍼포먼스, 질트랙 봉송, 줄다리기 퍼포먼스 등이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활력이 넘치는 문화제전으로의 도약**  
10월 8일(토)부터 12일(수)까지 아산시 양양은천역 광장 삼거리에서 '체전 기념 참여형 거리문화축제'가 열린다. '청춘과 미래'를 주제로 도내 청년 기획자들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공연·전시·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체전 사상 최초로 주민이 찾아가는 경기장 문화 이벤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회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경기장을 찾아가 선수단과 관람객을 위한 응원 공연을 실시하여 선수들에게 작은 감동을 전달한다. 이외에도 백제문화제, 금산인삼축제 등 15개 시·군 지역 행사와 연계하여 체전과 축제, 관광지를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체전 리포터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홍보하는 활력 넘치는 체전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 경기종목

정식종목	단체종목(9)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기록종목(12)	육상, 수영, 사이클, 궁도, 양궁, 사격, 역도, 롤러, 조정, 카누, 산악, 핀수영
	체급종목(7)	레슬링, 복싱, 씨름, 유도, 태권도, 우슈, 보디빌딩
시범종목	개인단체(17)	펜싱, 검도, 테니스, 탁구, 정구, 배드민턴, 골프, 승마, 체조, 요트, 볼링, 근대 5종, 트라이애슬론, 스쿼시, 당구, 댄스스포츠, 바둑
	시범종목	택견, 수상스키





# 생생 가이드 & 현장의 목소리

## Chapter 1: 수영

수영은 오랜 옛날부터 인류의 생활수단의 한 방편으로 습득된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더위나 화재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물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거나 놀이 등을 위해 자연스럽게 습득되었다.

이처럼 수영의 역사는 선사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1896년 제1회 올림픽대회에서 수영은 100m, 500m, 1,200m 등 3종목의 자유형, 경영이 시행되었다가 1900년 제2회 파리 대회 때부터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수영경기인 경영은 일정한 거리를 규정된 형태의 동작으로 얼마나 빨리 가느냐를 겨루는 것이다. 현재 자유형·평영·배영·접영·개인혼영·혼계영·계영 등 7개 종목으로 구분된다. 자유형은 50m, 100m, 200m, 400m, 800m, 1,500m, 평영은 100m, 200m, 배영은 50m, 100m, 200m, 접영은 100m, 200m, 개인혼영은 200m, 400m, 혼계영은 400m, 계영은 200m, 400m, 800m가 있다.

### INTERVIEW ①

“여름 휴가도 잊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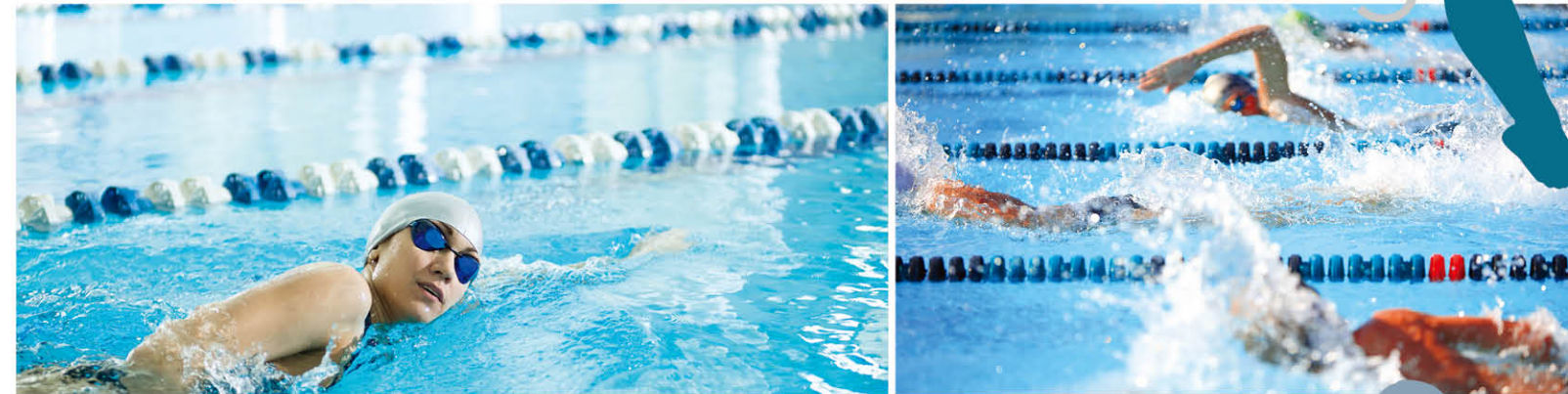
부산체육고등학교  
서성식 코치

부산체육고등학교는 10월,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는 1달 정도 휴식기를 가집니다. 12월 겨울방학에 들어갈 때부터는 동계 강화훈련에 돌입하고, 6월부터는 전국체전 대비 하계강화훈련에 들어갑니다.

현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오전·오후·야간 트레이닝을 하며, 오전에는 체력 위주, 오후에는 체력과 지구력 위주로 훈련합니다. 여름 휴가는 계획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연휴 때에도 선수들의 체중조절이 중요하다 보니 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체육고등학교와 사직실내수영장 두 군데에서 유일하게 훈련·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합에 나가보면 상위권 선수들은 경기, 서울, 강원 선수들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사·도에서 메달 획득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번 체전에서 메달 획득 가능성이 있는 다이빙의 우하람 선수와 서울체육중학교에서 전학 온 경영부의 박근태 선수도 자유형 금메달 획득 가능성이 큼니다. 그 외 평영·장거리·경영에서 5개, 다이빙 3개를 포함하여 총 8개의 메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점수는 1,283점이었습니다. 부산체육고등학교의 전체 점수가 6,100점이었으니 수영종목의 활약이 돋보였다고도 볼 수 있고, 총 23개 종목 중에 수영 종목이 많은 메달을 확보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영, 다이빙을 합쳐서 1,000점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Swimming



### INTERVIEW ②

“선수육성의 선순환 체계 확립이 절실합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홍명희 다이빙 전임지도자

훈련도 중요하지만, 대회를 중요시합니다. 오래전부터 가르치던 아이들이다 보니 무조건 일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학기중에는 3~7시까지 훈련을 하고, 방학 때는 9~12시, 3~7시까지 훈련을 합니다. 다이빙은 사직에서, 경영은 체육고등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이빙은 기계체조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1단계는 체력운동(지상운동), 2단계는 기계체조운동, 3단계는 입수훈련으로 나뉩니다. 평상시 입수훈련에서는 계속해서 난도를 높이는 훈련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한 바퀴 반을 하는 선수는 두 바퀴 반으로 훈련을 합니다. 전국체전이 다가왔을 때는 지상훈련(체력 훈련)을 강화하고 2·3단계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반복연습을 하고 동계훈련 때는 완성되기 전까지의 동작들에 대한 연습이 추가됩니다. 대회 10일 전부터는 집중력을 높이고 이미지 트레이닝 등 멘탈훈련에도 중점을 둡니다.

올해는 여러가지 악재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개인전과 싱크로 다이빙 부문에서 활약했던 손태랑 선수가 부상으로 은퇴하였고, 싱크로다이빙 부문에서도 선수 부족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여 전력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올림픽 출전 후 복귀한 우하람 선수를 중심으로 심기일전하여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선수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초등·중등·고등·대학·일반부로 연결되는 선수 육성의 선순환 체계 확립이 중요합니다.





# Chapter 2: 체조

체조(Gymnastics)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벌거숭이'를 뜻하는 'Gymno's'에서 파생된 말이다. 그리스시대에 달리기·뛰기·던지기·레슬링·권투 등 여러 가지 경기를 벌거숭이로 행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기원은 그리스와 중국의 고대 체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시대의 체조는 신체를 유연하게 하기 위하여 음악에 맞추어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으로, 오늘날의 리듬체조나 무용체조와 비슷한 성격이었다. 이러한 체조가 현재와 같은 형태의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 국가주의사상에 기초하여 나타난 근대체조의 성립 이후로 얀(Jahn, F.L.)의 독일체조, 나흐테갈(Nachteggall, F.)의 덴마크체조, 링(Ling, P.H.)의 스웨덴체조가 세계 3대 체조로 손꼽힌다.

근대체조는 점차 전 세계로 전파되어 각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되면서 발전하였으며 율동적이며 즐거운 체조의 출현이 요구됨에 따라 신·재즈·에어로빅체조 등과 같은 현대체조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현대체조를 대표하는 신체조는 점차 공·후프·리본 등 수구를 사용함으로써 체계화, 발전하였다. 이후 'Modern Rhythmic Gymnastics'라 개칭하여 전 세계에 보급되었고 최근 리듬체조와 스포츠 에어로빅스 종목이 새로 추가되었다.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기계체조, 리듬체조, 에어로빅 종목에 대한 경기가 치러진다. 기계체조 남자는 마루운동·안마·링·뿔름(도마)·평행봉·철봉의 6개 종목, 여자는 마루운동·뿔름(도마)·2단 평행봉·철봉 4개 종목이 있고, 남·여 모두 각 종목의 연기점수를 합해 평가하는 종합경기 종목이다. 모든 경기 종목에 대하여 모두 규정연기와 자유연기를 실시해야 한다.

리듬체조는 리본, 공, 곤봉, 후프, 줄 등 수구(手具)를 사용하여 연기를 펼친다. 이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 치러지며 개인전은 4종목을 실시하여 종합한 것과 종목별 경기로 나누고 자유연기만으로 경기를 행한다.

에어로빅체조는 전통적인 에어로빅스운동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음악에 맞춰 복합적이며 고강도의 동작을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모든 동작은 음악성, 역동성, 리듬과 높고 낮은 강도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INTERVIEW

“경험과 메달,  
모두 잡겠습니다”

동아대학교 2학년 김신애 리듬체조 선수

초등학교 1학년 때 방과 후 수업으로 리듬체조를 시작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수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훈련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많이 겪는 부상을 당해 중간에 쉬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당시, 발목을 다쳤는데 그 통증이 허리까지 올라와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훈련을 하고 잠시 쉬다가 대학교에 와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습은 보통 처음에 몸풀기와 워밍업(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다음으로 기본기를(다리 늘리기, 턴 연습) 하고, 기구를 잡습니다. 하루에 평균 4~8시간 연습합니다. 리듬체조 시합으로는 KBS배, 회장배, 전국대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회를 통해 경험을 쌓고, 전국체전에서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지만, 점점 메달에 욕심이 생깁니다.

부산에는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초·중·고 1개부씩만 갖춰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은 기본기부터 준비를 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기구 다루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시니어는 후프, 볼, 곤봉, 리본을 하고, 주니어는 줄이 추가되어 운동하게 됩니다. 전국체전을 위한 예선전에서는 기초기술, 높이 던지기, 예술점수 등을 합산(20점 만점)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전국체육대회 때까지 연습 강도를 높여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훈련에만 매진할 예정입니다.



Gymnastics





타원형의 볼을 양 끝에 설치된 직사각형 필드에서 15명씩 2팀으로 나누어 상대편 골라인을 향해 공을 가지고 달리거나 킥을 하여 득점을 올린다. 득점 차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며 동점일 경우에도 연장전을 하지 않는다. 2개의 골포스트 사이 거리는 5.6m이며, 경기 시간은 국제대회의 경우 전·후반 각 40분씩이며, 하프타임은 10분 이내이다.

럭비의 기본 대형으로는 스크럼(Scrum)과 라인아웃(Line out)의 2가지가 있다. 스크럼 상태이거나 토크 후가 아니라면 언제라도 공을 잡고 달리며 패스와 킥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공을 패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옆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비스듬히 패스를 하여 달려가서 킥을 한다.

Chapter 3:  
**럭비**



INTERVIEW

“선수 간 대화와 이해로  
완성도 높ی겠습니다”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 강석훈 감독

제가 추구하는 훈련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기초를 바탕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학생 선수들의 실력이 천차만별로 달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기본기를 강조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팀이 되어야 쉽게 지지 않으며 강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훈련도 수월히 이행할 수 있고, 개개인의 자신감이 쌓이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럭비는 팀 훈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패스에 대한 실수, 캐치에 대한 실수가 크게 작용하므로 선수들에게도 항상 기본기를 바탕으로 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평상시 숙소·학교·가정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이 발을 내디딜 때, 평소의 생활태도가 경기에 크게 작용하고 부상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또한, 학생선수들 간의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되지 않는 부분이나 개개인의 심적인 문제점도 듣고 같이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팀 분위기도 살아나고,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Rugby



그리고 이번 체전을 준비하는 동안 3학년들의 진로 결정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진학도 못 하는데 그만두겠다.” 하는 3학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서로의 문이 닫혀 있어서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문제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팀 분위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감독, 코치, 학생 선수들의 끊임없는 대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올해 1월 전지훈련부터 현재까지의 기량을 본다면 크게 상승 중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문제보다 개개인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학년 간에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어느 날 서로의 맘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대회에서 생각지도 못한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나온 조직력으로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조직력이라면 체전에서의 경기력이 더욱 발전되고 완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끝으로, 럭비처럼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도 부산에서의 대회 유치나 합숙시설 확충, 운동여건의 개선, 선수 수급 등 많은 관심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수들의 각오 한마디 ①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장진근(주장)

이번 전국체전에는 주장답게 팀을 잘 이끌어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게 결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체고 럭비부 파이팅”

선수들의 각오 한마디 ②

“후회 없는 경기  
펼치겠습니다”

이창희(부주장)

이번 대통령기 대회 때 아쉽게 졌지만, 전국체전에서는 더 보완해서 마지막 경기답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후회 없는 시합으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부산체고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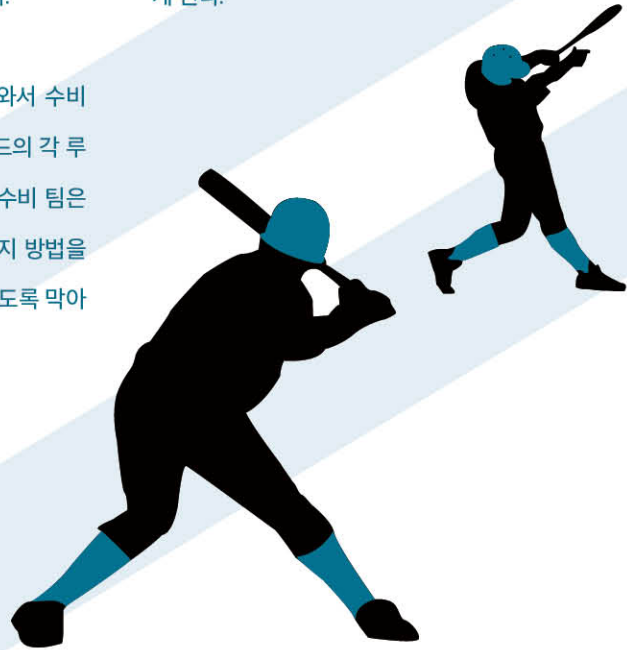


Chapter 4:  
**야구**

펜스로 둘러싸인 경기장에서 9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팀이 한 명 이상의 심판원의 주재 아래 규칙에 따라 치르는 경기이다. 야구의 목표는 공을 방망이로 맞추어, 한 번이 90피트인 다이아몬드의 각 꼭짓점에 놓여 있는 베이스를 밟은 뒤 마지막으로 홈플레이트를 밟아서 득점하는 것이다.

공격 팀은 9명의 타자들이 순서대로 나와서 수비 팀의 투수가 던지는 공을 쳐서 다이아몬드의 각 루를 밟은 뒤 홈에 들어와야 하며, 동시에 수비 팀은 공격 팀의 타자어나 주자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아웃시켜서 공격 팀이 득점을 못 하도록 막아야 한다.

공격 팀이 아웃 세 번을 기록할 경우 수비 팀은 공격 팀으로, 공격 팀은 수비 팀으로 바뀌게 된다. 이 세 번의 아웃을 이닝(Inning, 회)이라고 부르며, 프로 게임에서 한 경기는 아홉 개의 회로 구성된다. 마지막 회가 끝날 때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이기게 된다.



INTERVIEW

“경남고 선수들의 멋진 경기 기대해주세요”

경남고등학교  
야구 전광렬 감독

먼저, 철저한 기본기와 기초체력 위주의 훈련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기술과 체력 훈련을 병행해나가고 있습니다. 훈련을 꾸준히 하며 팀 전술 훈련 및 실전 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도 꾀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다시 동계훈련에 임하는 마음가짐으로 기초체력과 기본기를 다지고 무엇보다도 시즌 후반 흐트러질 수 있는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전국체전 대회기간에 맞추어 훈련과 연습 경기 및 충청권 전지훈련을 통해 현지 적응 훈련까지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초 열렸던 주말리그전에서는 후반기 우승을 통해 4개의 전국대회 본선 진출을 확정 지어 놓았습니다. 전국체전에 초점을 맞추어 전국대회를 치른 결과 전반 3개 대회에서는 16강에서 좌절하였지만 지난 8월 3일부터 열린 전국 77개 팀이 참석하는 '봉황대기전국고교 야구대회'에서는 4강에 진출하며 전반기 대회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는 팀뿐만 아니라 선수 개인의 기량과 플레이가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올랐으며 전국체전까지 좀 더 다듬고 조율하면 메달권 진입도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팀 내 이주찬 주장은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과 경기에 임하여 왔고 앞으로 남은 기간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하여 전국체전에서 꼭 메달을 목에 걸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대회에서 우리 경남고 선수들이 멋진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면 메달 획득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팀 전력 분석과 우리 팀 선수 훈련 및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해서, 기대에 꼭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Baseball







공격수 박토진 선수의 골 득점 후 환호하는 모습

축구가 한국에 전파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세기 말이다. 오늘날의 축구와는 조금 달랐겠지만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시대에도 축구놀이 형태의 공차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과 김춘추가 농주(弄珠)를 가지고 노는 축구를 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영국을 모태로 하는 근대 축구가 한국에 전파된 것은 1882년(고종 19년) 인천항에 상륙한 영국 군함 '플라이호스'의 승무원들을 통해서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식 축구의 보급은 1904년 서울의 관립 외국어 학교에서 체육 과목의 하나로 채택하면서부터이다. 특별한 장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구의 특성은 당시 가난했던 민중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축구선수에게 필요한 군센 체력과 강인한 투쟁심은 한국인의 정서와도 일치했다. 여기에 1929년부터 시작된 경성(서울)과 평양의 경평(京平) 대항

Chapter 5:  
**축구**



전은 축구에 대한 관심을 크게 증폭시키며 전 민족이 즐기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은 계기가 되었다. 축구는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가슴에 쌓인 민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독립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싸이었다. 일제 말기 해산되었던 조선축구협회는 해방과 함께 1948년 9월 4일 대한축구협회로 개칭하면서 새롭게 출범했다. 동시에 FIFA(국제축구연맹)에 가입했고, 1954년에는 AFC(아시아축구연맹)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1948년 런던 올림픽 본선에 한국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발을 내디뎠으며 1954년 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에 최초로 진출하였다. 이후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8회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함으로써 아시아 최다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되었다.

INTERVIEW

“자신감으로 무장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축구 박상인 감독

현재 시즌 중이라 일주일에 한 번 시합을 하다 보니 꾸준한 컨디션 관리와 유지를 위해 오후 3시부터 2시간 정도 훈련을 합니다. 조직력 발전을 위한 팀 전술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고 개인·부분전술 발전을 위해 패스, 슈팅 등의 훈련을 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시즌 중이기 때문에 이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며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시즌 중에 강점으로 나타났던 부분은 더욱더 정확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한 달 전부터는 강도 높은 지구력, 체력훈련을 하며 정확성을 높이는 훈련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대회 일주일 전부터는 컨디션 조절과 조직력 극대화를 위한 훈련에 초점을 맞추며 선수들에게 전국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부산 축구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적인 무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전국체전에서 3연패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팀워크, 조직력, 상호 간의 이해력이 뛰어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회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격수 정순규 선수(우)

선수들도 '항상 전국체전에서 강했기 때문에 올해도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대회 4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4연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면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산의 축구종목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소년 축구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며 초·중·유망선수들이 타 사도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 Football



공격수 박승민 선수(좌)



수비수 이재광 선수(우)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경 기 장

### 경기장 분포현황

도내 70개소(15개 시·군), 타 도 4개소 ※ 타 도(4개소) 충북 2개소, 경북 2개소

구분	총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천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경기장 수	70	17	3	2	23	2	5	1	2	3	1	2	1	4	2	2

### 시·군별 경기장 현황

지역	종목	종별	경기장
천안(17)	축구	남·여고등부, 여대부·해외동포	천안축구센터
	테니스	대학·일반부	천안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해외동포	천안실내테니스장
	농구	여고, 여일반부	단국대학교 체육관
		남고, 남일반부	상명대학교 체육관
	배구	남고부	천안고등학교 체육관
		여고·여일	공주대 천안캠퍼스 체육관
	핸드볼	남대·일반부	우정공무원교육원 체육관
		전종별	유관순체육관
	야구	고등부	북일고등학교 야구장
	체조	에어로빅	한국기술교육대 체육관
		기계체조	남서울대학교 체육관
	볼링	일반부	천안종합운동장 볼링장
		대학부	홍익볼링장
		고등부	정석볼링장
	스쿼시	고등부	남서울대학교 체육관
		대학·일반부	천안시국민체육센터
공주(3)	수상스키	전종별	금강신관공원 수상스키경기장
	야구	일반부	공주시립박찬호야구장
보령(2)	조정	전종별	금강조정경기장
	요트	전종별	보령요트경기장
아산(23)	육상	트랙·필드	이순신종합운동장
		마라톤	아산시(신정호) 일원
		경보	아산시(신정호) 일원
	축구	여일반부	아산신도시 하수처리장 축구장
		남일반부	경찰교육원 축구장
		남대·일반부	이순신종합운동장
		남대부	선문대학교 축구장
	수영	다이빙	방축수영장
		경영/수구	배미수영장
	핀수영	전종별	방축수영장
	테니스	남·여고등부	지산체육공원 테니스장
		남·여고등부	강변테니스장

### 시·군별 경기장 현황

아산(23)	레슬링	전종별	이순신 빙상장·체육관
	검도	전종별	경찰교육원 체육관(1F)
	역도	전종별	온양고등학교 체육관
	체조	리듬체조	선문대학교 체육관
	탁구	전종별	호서대학교 체육관
	볼링	해외동포	로얄볼링장
	하키	전종별	아산학선 필드하키경기장
			순천향대학교 하키경기장
	소프트볼	전종별	한마음 야구장
	택견	전종별	경찰교육원 체육관(3F)
댄스스포츠	전종별	아산시민체육관	
서산(2)	유도	전종별	서산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태권도	전종별	한서대학교 영암체육관
논산(5)	근대5종	복합경기(육상+경기)	논산시 공설운동장
		펜싱	건양대학교 집나지움
		수영	충남체육고등학교 수영장
	보디빌딩	전종별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롤러	전종별	논산학생인라인롤러경기장	
계룡(1)	펜싱	전종별	계룡시민체육관
당진(2)	배드민턴	전종별	당진 실내체육관
	산악	전종별	당진 인공 암벽장
금산(3)	사이클	개인도로	금산읍 남이면 일원
		도로독주	금산읍 추부면 일원
		산악자전거	군북면 일원
부여(1)	카누	전종별	백마강 카누경기장
서천(2)	세팍타크로	전종별	서천 국민체육센터
	당구	전종별	(구)성실여중 체육관
청양(1)	복싱	전종별	청양 군민체육관
홍성(4)	트라이애슬론	수영	홍보지구 트라이애슬론장
		사이클	
		육상	
	우슈	전종별	홍주문화체육센터
예산(2)	양궁	전종별	홍주종합경기장
	정구	전종별	광천생활체육공원 정구장
	럭비	전종별	예산종합운동장
태안(2)	바둑	전종별	예산생활체육관
	씨름	전종별	태안 군민체육관
충북(2)	골프	전종별	현대더링스CC
	사이클	트랙	음성종합운동장
경북(2)	승마	사격	청주종합사격장
		화약총	
경북(2)	근대5종	승마	상주 국제승마장
		승마	문경 국군체육부대 승마장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경기 일정

종목	종별	10.7(금)	10.8(토)	10.9(일)	10.10(월)	10.11(화)	10.12(수)	10.13(목)	경기장(안)
육상	트랙/필드			○	○	○	○		이순신종합운동장
	마라톤			○					아산시 일원 (신정호 주변도로)
	하프/10Km					○	○		
수영	경보					○			배미수영장 아산실내수영장
	경영		○	○	○	○	○	○	
	수구		○	○	○	○	○	○	
	다이빙		○	○	○				
축구	전종별								미정
	싱크로					○			
야구	고등부	○	○	○	○	○	○		북일고등학교 야구장
	일반부	○	○	○	○	○	○		공주시립야구장
테니스	고등부(개인)	○	○	○	○	○	○		지산체육공원 테니스장
	고등부(단체)	○	○	○	○	○	○		강변테니스장
	대학·일반	○	○	○	○	○	○		천안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해외동포	○	○	○	○	○	○		천안실내테니스장
정구	전종별		○	○	○	○		광천생활체육공원 정구장	
농구	고등부		○	○	○	○	○		상명대학교 체육관
	일반부		○	○	○	○	○		천안단국대학교 체육관
배구	남고부		○	○	○	○	○		천안고등학교 체육관
	여고부		○	○	○	○	○		공주대 천안캠퍼스체육관
	여일부		○	○	○	○	○		
	대학부		○	○	○	○	○		
탁구	남일부		○	○	○	○	○		우정공무원교육원
	전종별								미정
핸드볼	전종별	○	○	○	○	○	○		호서대학교 체육관
럭비	고등부		○		○		○		유관순 체육관
	대학/일반	○		○		○		○	예산 공설운동장
자전거	트랙	○	○	○	○				음성종합운동장
	도로					○	○	○	금산읍 남이면 일원
	MTB	○							군북면 일원
복싱	전종별	○	○	○	○	○	○		청양 군민체육관
	그레고					○	○	○	이순신 빙상장·체육관
자유형		○	○	○					
역도	여고부			○	○				
	여일부				○	○			
	전종별	○	○	○	○	○	○		온양고등학교 체육관
씨름	고등부		○	○					태안 군민체육관
	대학부			○	○				
	일반부				○	○			

종목	종별	10.7(금)	10.8(토)	10.9(일)	10.10(월)	10.11(화)	10.12(수)	10.13(목)	경기장(안)
유도	전종별	○	○	○	○	○			서산 농어민문화센터
검도	전종별			○	○	○			경찰교육원 체육관(1F)
궁도	일반부		○	○	○				보령정
양궁	전종별	연습	○	○	○	○	○		홍주종합경기장
사격	전종별		○	○	○	○	○		청주종합사격장
승마	일반부		○	○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기계체조		○	○	○				남서울대학교 체육관
체조	리듬체조					○			선문대학교 체육관
	에어로빅		○	○					한국기술교육대 체육관
하키	남자부	○	○	○	○	○	○	○	순천향대학교 하키경기장
	여자부	○	○	○	○	○	○	○	아산학선 필드하키경기장
펜싱	전종별		○	○	○	○	○		계룡시민체육관
배드민턴	전종별		○	○	○	○	○	○	당진 실내체육관
태권도	전종별								미정
조정	전종별		○	○	○				금강 조정경기장
볼링	전종별								미정
롤러	전종별		○	○	○				논산학생인라인롤러경기장
요트	전종별		○	○	○	○	○		보령시 요트경기장
근대 5종	펜싱		○	○	○	○			건양대학교 जि나지움
	수영		○	○	○	○			충남체육고등학교 수영장
	복합		○	○	○	○			논산시 공설운동장
카누	승마						○		문경 국군체육부대승마장
	전종별		○	○	○				백마강 카누경기장
골프	전종별				○	○	○	○	현대 더링스CC
	해외동포				○	○	○	○	
보디빌딩	전종별		○	○					논산 문화예술회관
우슈	전종별		계체	○	○	○			홍주문화체육센터
핀수영	전종별		○	○					아산실내수영장
세팍타크로	전종별	○	○	○					서천 국민체육센터
소프트볼	전종별	○	○	○	○	○	○		아산 한마음야구장
트라이 애슬론	육상		○	○					홍보지구 홍성방조제 일원
	수영		○	○					
	사이클		○	○					
스쿼시	고등부		○	○	○	○			남서울대학교 체육관
	일반부		○	○	○	○			천안시 국민체육센터
	해외동포			○	○				남서울대학교 체육관
당구	일반부								(구)성실여중
산악	남일부		○	○					당진 인공 암벽장(예정)
댄스포츠	전종별		○	○					아산 시민체육관
바둑	전종별		○	○					예산 생활체육관
택견	전종별		○	○					경찰교육원 체육관(3F)
수상스키	전종별		○	○					금강신관공원 수상스키장

※ 회원종목단체 및 개최지의 사정에 따라 경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 뜨거웠던 열정의 시간, 세계 속의 부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가 2009년 10월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121차 총회에서 스페인 마드리드, 미국 시카고, 일본 도쿄 등을 제치고 제31회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리우는 IOC 출범 122년 만에 처음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가 됐다. "Live your passion!"이라는 공식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되었던 '2016 리우 올림픽'을 파헤쳐보자! 마스코트, 종목, 개최지 소개, 부산시 소속·출신 선수까지 다양하게 살펴봤다.



**역대 최다 규모로 펼쳐져**

2016 리우 올림픽에는 2016년 8월 5일(금)부터 8월 21일(일)까지 17일간 2014년 말 IOC 회원국이 된 코소보와 남수단을 포함해 역대 최다인 206개국, 1만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또한 총 28종목(육상, 조정, 배드민턴, 농구, 복싱, 카누, 사이클, 승마, 펜싱, 축구, 체조, 역도, 핸드볼, 하키, 유도, 레슬링, 수영, 근대5종, 태권도, 테니스, 탁구, 사격, 양궁, 트라이애슬론, 요트, 배구, 골프, 럭비)에서 금메달 306개를 놓고 치열한 승부가 전개됐다. 리우올림픽은 리우의 바하, 데오도루, 코파카바나, 마라카냥 등 4개 지역, 32개 경기장에서 열렸다.



**남미 최초의 올림픽**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올림픽이 시작되었다. 하계올림픽의 경우 세계대전으로 치르지 못한 1916년(6회), 1940년(12회), 1944년(13회) 3차례를 제외하고는 총 27회가 치러졌다. 그중 유럽이 16회로 가장 많은 대회를 개최했고, 북아메리카(6회), 아시아(3회), 오세아니아(2회) 대륙이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2016년 8월 남미에서 첫 올림픽이 열리게 됐다.

**28개 종목,  
306개 금메달을 둔 승부**

골프(남녀 개인)와 럭비(남녀 팀 7인제)가 리우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새롭게 채택됐다. 골프의 경우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이후 112년 만에, 럭비는 1924년 파리올림픽 이후 92년 만에 다시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다. 두 종목 남녀 총 4개의 메달이 베이징, 런던 올림픽과 비교해 더 늘어났다. 종목별로는 육상에 가장 많은 47개의 금메달을, 수영이 46개(경영, 다이빙,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수구, 마라톤 수영)였다. 이 외에 레슬링·체조·사이클이 18개, 카누 16개, 사격·역도 15개, 유도에 14개의 금메달을 두고 승부가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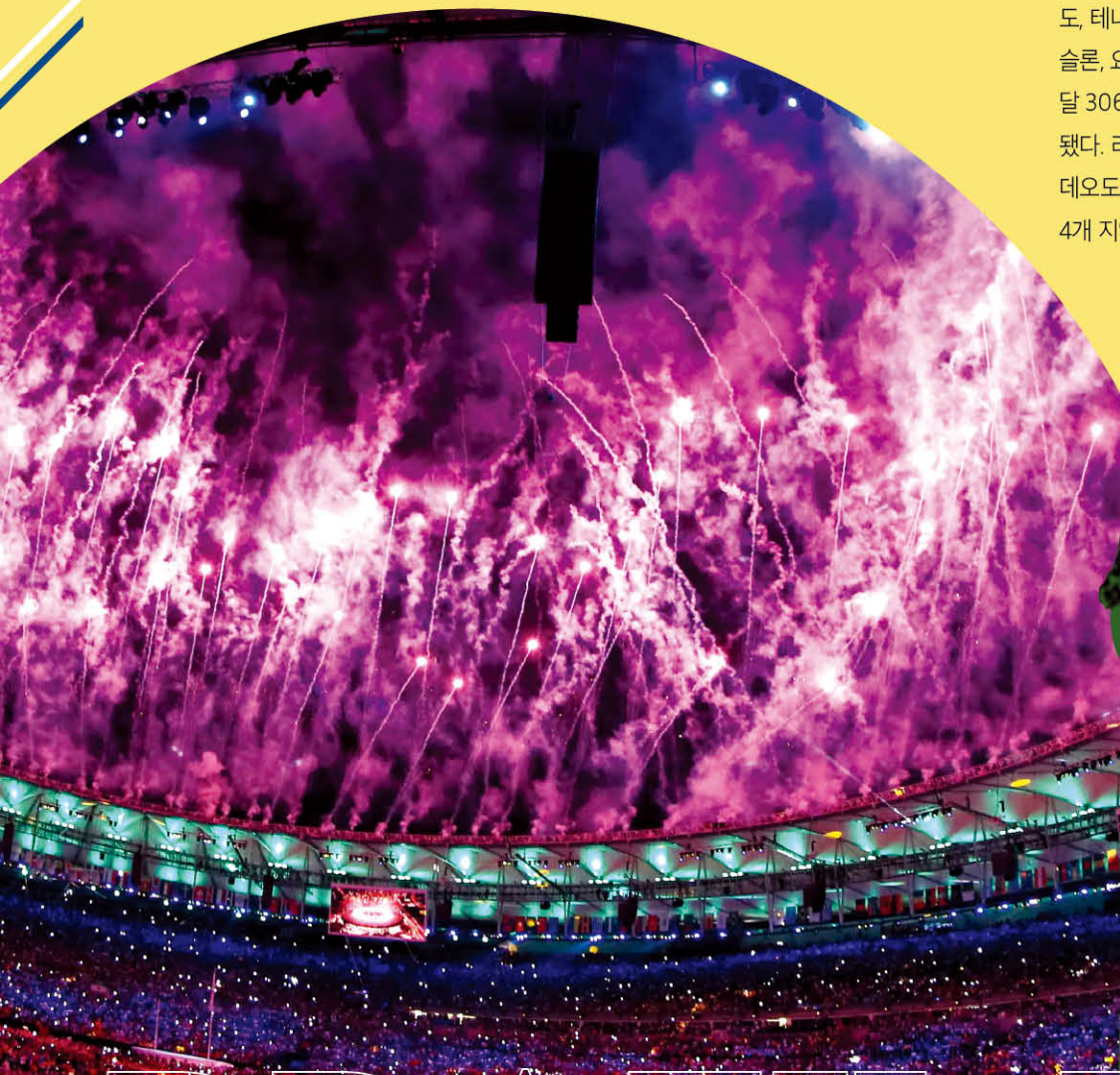
**개최지 리우는 어떤 도시인가?**

대서양에 접한 항구 도시로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다. 리우는 1763년부터 1960년까지 브라질의 수도이기도 했다. 경관이 아름다워 나폴리(이탈리아), 시드니(호주)와 함께 세계 3대 미항으로 꼽히기도 한다. 코르코바두 산 정상에 있는 거대한 예수상과 코파카바나 해변 등이 유명하며, 매년 사순절 전에 열리는 카니발(사육제)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마스코트, 비니시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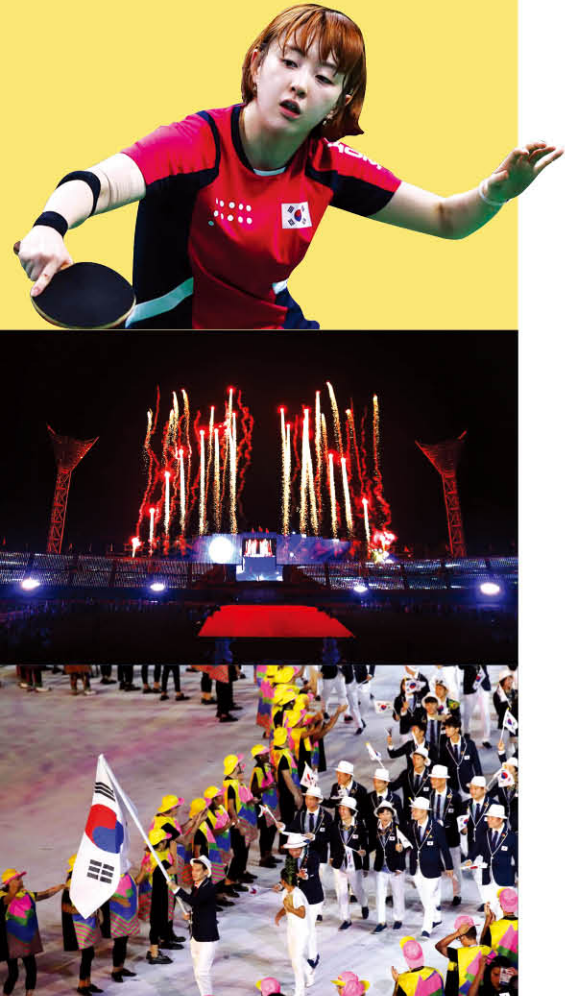
올림픽 마스코트는 비니시우스(Vinicius)였다. 이는 브라질의 유명한 작곡가 겸 가수인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Vinicius de Moraes)의 이름에서 따왔다. 노란색으로 형상화한 비니시우스는 브라질의 다양한 야생동물의 외양과 특성을 결합한 것이다. 통(Tom)은 브라질 보사노바의 대가인 통 조빙(Tom Jobim)의 이름을 딴 것으로, 녹색으로 형상화돼 브라질의 풍부한 식물 세계를 상징하였다.





## 대한민국의 리우올림픽

지구촌 최고의 스포츠 축제 올림픽에는 히로애락이 담겨 있다. TV와 인터넷을 통해 태극전사들의 활약상을 지켜본 우리에게 감동과 웃음, 걱정과 눈물 등 히로애락의 순간이 교차했다.



사격 - 진종오 선수

### 희(喜), 끝날 때까지 긴장 놓지 마

‘사격 황제’ 진종오(37·KT, 부산 소속)는 50m 권총 결선에서 소름 돋는 역전극으로 세계 사격 최초의 올림픽 개인 종목 3연패를 이뤘다. 아홉 번째 격발에 6.6점을 쏘 8명 중 7위로 추락하며 탈락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이후 순위를 한 계단씩 끌어올린 결과,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고 1위로 올라섰다. 마지막 발은 9.3점을 쏘 대회신기록 193.7점을 찍고 시상대 맨 위에 올랐다.

### 노(怒), 해도 너무한 편파판정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을 꿈꿨던 ‘레슬링 간판’ 김현우(28·삼성생명)는 그레코로만형 75kg급 16강전에서 로만 블라스프(러시아)에 판정 논란 속에 5-7로 패했고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날 4점짜리 기술이 2점으로 둔갑하면서 금메달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광복절에 금메달의 꿈이 좌절된 김현우는 패자부활전에서 팔이 빠지는 부상을 당하면서도 투혼을 발휘하여 동메달을 땀다. 이후 태극기를 앞에 펼쳐 두고 큰절을 하며 눈물을 적셨다.

### 애(哀), 선수를 울린 안타까운 순간

경기 결과를 둘러싼 질책은 선수를 더욱 힘들게 했다. 여자 배구 대표팀 박정아(23·IBK기업은행)는 8강전에서 네덜란드에 패한 뒤 SNS를 단았다. 팬들이 경기 내용을 질책하는 글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한편, 사이클 국가대표 박상훈(23·서울시청)은 낙차 사고로 옴니엄 경기를 끝마치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그는 마지막 종목인 포인트 레이스에서 52번째 바퀴를 돌다가 낙차 사고를 당했다. 결국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돌발 사고로 메달 꿈을 접어야 했던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 락(樂), 승부보다 경기를 즐겼다

여자 기계체조 이은주(17·강원체고)는 개인종합 53위로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북한의 흥은정(27)과 짝은 ‘셀카’로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줬다. 이를 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결과를 떠나 축제를 즐기는 그녀를 ‘위대한 몸짓’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한국 복싱의 유일한 올림픽 출전자 함상명(21·용인대)은 아름다운 패자로 기억됐다. 그는 복싱 밴텀급(56kg) 16강전에서 장자웨이(중국)에게 0-3 심판 전원 일치 판정패했지만 먼저 다가가 자신을 꺾은 상대의 손을 먼저 잡았다. 그리고 그 손을 높이 들어 관중에게 승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진심으로 승리를 축하해줬다. 승패에 집착하지 않고 경기를 즐긴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다.



### 간절했던 銅 정경은-신승찬 “표현 못 할 만큼 값져”

배드민턴 여자복식조 정경은(26·KGC인삼공사)-신승찬(22·삼성전기, 부산 소속) 선수가 동메달을 따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값진 메달”이라며 감격했다. 한국 배드민턴은 복식 5개 조 중 4개 조가 8강에서 탈락하고, 단식도 4명 모두가 16강이나 8강에서 떨어졌다. 유일하게 메달권에 남아 있던 여자복식조 정경은-신승찬이 대표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들은 준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인 일본의 마쓰모토 미사키-다카하시 아야카에게 패해 금메달의 꿈은 접어야 했다. 이로써 대표팀은 노골드 및 노메달 위기에 놓여있었기에 동메달 하나가 간절했다. 두 선수는 부담을 안고 18일(한국시각) 동메달 결정전에 나섰다. 상대는 세계 랭킹 2위인 탕위안팅-위양(중국)이었다. 정경은-신승찬은 세계 랭킹 5위였지만,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중국팀을 2-0으로 누르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경기 종료 후, 정경은은 “끝나서 기분이 좋다. 동메달이라도 따고 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값진 메달이다.”라고 말했다. 신승찬은 “아쉬운 경기를 많이 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할 수 있는 모습을 다 하고 메달도 따서 기분이 좋다.”고 기뻐했다.

### 가장 압도적인 종목은 무엇이었까

한국은 리우올림픽 양궁에서 독무대를 만들었다. 남자양궁 개인전에서 구본찬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자 개인전에서 장혜진이 금메달을 땀다. 이어 남자 단체전과 여자 단체전에서도 우수한 한국은 양궁 전 종목을 석권했다.

### 양궁 전종목 석권!

리우올림픽에서 사상 첫 전 종목 석권의 업적을 이룬 양궁의 문형철 총감독은 “리우올림픽 무대에 서기까지 남녀 태극궁사들이 걸은 길은 그만큼 혹독했다. ‘올림픽 출전보다 국가대표 선발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내부 경쟁과 피나는 훈련이 금빛 영광의 밑거름이었다.”고 전했다.

### 리우 골드 프로젝트, 과묵적중으로 결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한국스포츠개발원은 이번 리우올림픽에 대비해 ‘리우 골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그동안 이뤄져 온 스포츠과학 지원 시스템을 대폭 보완한 것이다. 석·박사급으로 구성된 현장밀착지원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 반영 뿐 아니라 심리, 기술, 체력, 영상 분석 등 토탈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 흔들리지 않는 태극궁사 평정심의 비결은?

김영숙 심리 트레이너(한국스포츠개발원 선임 연구원)는 양궁 남녀 대표팀 전 종목 석권의 ‘숨은 공신’으로 꼽힌다. 양궁은 리듬감과 자세, 힘 분배, 호흡조절, 장비 등 기술적 요소에 비해 집중력이나 관중소음, 불안감 등 심리적 부분에서 승패 차이가 드러나는 경기이다. 김 트레이너는 생각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았던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하면서 평정심을 찾도록 했다.





# 인 / 물 / 탐 / 구

## 2016 리우 올림픽 부산시 소속 출전선수 명단

연번	종목	선수	소속	출전 세부종목
1	요트	하지민	해운대구청	레이저
2	역도	손영희	부산역도연맹	+75kg
3	사격	진종오	KT	10m 공기권총, 50m 권총
4		한승우	KT	50m 권총
5		황성은	부산시청	25m 권총
6		박해미	우리은행	10m 공기소총
7	사이클	손제용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스프린트
8		이혜진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스프린트
9	수영	우하람	부산체고(3)	10m 플랫폼, 3m 스프링보드
10		최규웅	국군체육부대	평영 200m
11	배드민턴	김사랑	삼성전기	복식
12		이용대	삼성전기	복식
13		김기정	삼성전기	복식
14		신승찬	삼성전기	복식
15		김하나	삼성전기	복식
16	펜싱	정승화	부산시청	남자 에페
17	핸드볼	이은비	부산시설공단	여자 단체전
18		남영신	부산시설공단	
19	탁구	서효원	렛츠런파크	여자 단식, 단체전
20	카누	최민규	부산강서구청	스프린트
21	하키	김보미	KT	여자 단체전
22		서정은	KT	여자 단체전
23		장희선	KT	여자 단체전
24		한혜령	KT	여자 단체전
25		정해빈	KT	여자 단체전

## 2016 리우올림픽 부산시 출신 출전선수 명단

연번	종목	선수	소속	출전 세부종목
1	레슬링	류한수	삼성생명보험(주)	그레코 66kg
2	배구	박정아	IBK기업은행	여자 단체전
3		양효진	현대건설	여자 단체전
4	펜싱	김지연	익산시청	여자 사브르
5		윤지수	안산시청	여자 사브르
6		구본길	국민체육진흥공단	남자 사브르

## 부산시 소속 메달리스트

### >> KT 사격팀

생년월일 1979년 9월 24일 (78kg)

출신 춘천고대부속초~남춘천중~강원사대부고~경남대

주특기 종목 10m 공기권총, 50m 권총

올림픽 출전종목 10m 공기권총, 50m 권총

### 주요 경기실적

- 2004년 아테네올림픽 50m 권총 은메달
- 2008년 베이징올림픽 50m 권총 금메달, 10m 공기권총 은메달
- 2012년 런던올림픽 10m 공기권총, 50m 권총 금메달
- 2012년 제28회 회장기전국사격대회 50m 권총, 공기권총 개인우승
- 2012년 한화회장배전국사격대회 50m 권총, 공기권총 개인우승
- 2012년 제12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50m 권총, 공기권총 개인우승
- 2012년 ISSF 윈헨 월드컵 사격대회 50m 권총, 공기권총 개인우승
- 2016년 리우올림픽 50m 권총 금메달



진종오 선수 (36세)



### >> 삼성전기 배드민턴팀

생년월일 1994년 12월 6일 (63kg)

출신 가평초 ~ 전주성심여중 ~ 전주성심여고 ~ 삼성전기(현)

주특기 종목 여자 복식

올림픽 출전종목 여자 복식

### 주요 경기실적

- 2016년, 2014년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복식 동메달
- 2015년 덴마크 오픈슈퍼시리즈 여자복식 금메달
-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혼합복식, 여자복식, 여자단체 금메달
- 2015년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단체 은메달
- 2016년 리우올림픽 여자복식 동메달



신승찬 선수 (21세)





## 리우올림픽,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다

사상 첫 남미대륙에서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이 환희와 감동, 아쉬움을 뒤로하고 지난 22일 오전 7시 15분(이하 한국시간) 폐막식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한국 올림픽 선수단은 골프와 태권도에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끝으로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 총 메달 21개로 종합 8위에 자리했다.

- '골프여제' 박인비(28·KB금융그룹) 선수가 여자 골프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엮어 5언더파 66타, 최종합계 16언더파 268타로 세계 랭킹 1위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무대에서 10년 동안 메이저대회 7승을 포함해 17승을 거둔 박 선수는 골프 역사상 커리어 그랜드슬램(생애 통산 4대 메이저 대회 우승)과 명예의 전당 입회(최연소), 올림픽 금메달까지 달성하며 최초의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 선수가 됐다.

- 태권도 종목에서 김소희(22·한국가스공사)·오혜리(28·춘천시청) 선수는 매 경기 명승부를 펼치며 생애 첫 출전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랜드슬램에 도전했던 김태훈(22·동아대)·이대훈(24·한국가스공사) 선수는 아쉽게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패자부활전을 거쳐 동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태권도 대표팀의 마지막 주자였던 차동민 선수도 멋진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대훈 선수는 금메달을 따내지 못했지만 승자에 대한 예우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승리 이상의 감동을 선사했다.

-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2·연세대) 선수는 아시아 최초의 리듬체조 올림픽 메달을 이루지 못했다. 리듬체조 개인종합 결선에서 후프 18.216점(3위), 볼 18.266점(4위), 곤봉 18.300점(3위), 리본 18.116점(4위)을 받아 합계 72.898점을 기록해 4위에 올랐다.

-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75kg급에 출전했던 김현우(27·삼성생명) 선수는 16강전에서 러시아의 로만 블라스프에게 어이없는 오심으로 패했다. 이후 패자부활전을 통해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건 그는 경기장 중앙에 태극기를 놓고 큰절을 하며 아쉬움의 눈물을 쏟아 국민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다. 또한 마지막 희망이었던 김관욱(26·국군체육부대) 선수는 남자 레슬링 자유형 86kg급 16강전에서 레이네리스 살라스 페레스(쿠바)에게 패해 메달 획득에 실패하면서 한국 레슬링은 노골드로 이번 올림픽을 마감했다. 이에 따라 '효자 종목'으로 평가받았던 한국 레슬링은 리우 올림픽에서 동메달 1개를 수확하는 데 그쳤다.



신승찬(배드민턴)



우하람(수영)



진종오(사격)



최규웅(수영)



하지민(요트)

리우 올림픽은 끝났지만, 다음 올림픽과 또 다른 목표를 둔 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더 큰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본다. 올림픽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정한 도전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준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 한국 다이빙의 '희망' 우하람(18·부산체고) 선수는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결선에 진출해 11위를 차지했다. 이제 18세에 불과한 그는 4년 뒤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을 기대할 유망주로 떠올랐다.

- 근대5종의 정진화(27·LH)·전웅태(21·한국체대) 선수가 각각 13위와 19위로 올림픽을 마감했다. 조광희(23·울산시청) 선수는 카약 남자 1인승 200m 결선B(9~16위 결정전)에서 37초265로 전체 7명 중 4위를 기록했다. 결선A에 오른 선수들을 포함한 조광희 선수의 최종 순위는 12위가 됐다.

- 양궁은 사상 첫 전 종목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번에 4개의 금메달을 휩쓸며 역대 올림픽 통산 23개의 금메달을 획득, 쇼트트랙을 제치고 동-하계 올림픽 사상 한국에 가장 많은 금메달을 안겼다.

- 남자양궁 구분찬(23·현대제철) 선수와 여자양궁 장혜진(30·LH) 선수는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우승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기보배(28·광주광역시청) 선수는 올림픽 단체전 2연패와 함께 3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사격종목의 진종오(36·kt) 선수는 사격 남자 50m 권총에서 우승하며 한국 올림픽은 물론 올림픽 사격종목 사상 첫 3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 펜싱 에페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박상영(22·한국체대) 선수는 한국 펜싱을 이끌 차세대 간판으로 떠올랐다. 특히 결선전에서 속으로 읊조렸던 '할 수 있다'는 다른 종목 선수들에게도 귀감이 되며 이번 올림픽 최대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 나선 김정환(33·국민체육진흥공단) 선수는 동메달을 따내며 한국 올림픽 펜싱 사상 첫 남자 사브르 개인전 메달을 선사했다. 동메달 결정전에서 보여준 '열혈 세리머니'는 브라질 현지 팬들을 열광하게 했다.

- 반면 기대했던 유도 종목의 부진은 한국 선수단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유도 남자부는 세계랭킹 1위 선수가 4체급이나 포진해 있는 역대 최강 전력으로 평가됐고 여자부도 20년 만에 금메달을 있겠다는 각오로 최소 2~3개의 금메달을 예상했지만 여자 48kg급 정보경(25·안산시청) 선수와 남자 66kg급 안바울(22·남양주시청) 선수가 각각 은메달을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남자 90kg급 곽동한(24·하이원) 선수도 동메달에 그쳤다.

- 단체 구기 종목의 부진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신태용 감독이 이끈 축구 대표팀은 인상적인 경기력으로 조별예선을 통과하며 두 대회 연속 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8강에서 온두라스에 일격을 당해 눈물을 삼켜야했다. 여자 배구도 세계적인 공격수 김연경(28) 선수를 앞세워 메달 상상에 나섰지만 8강에서 네덜란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여자 핸드볼과 여자 하키 역시 예선에서 탈락하며 다음 올림픽을 기약했다.

- 가장 많은 메달이 걸린 육상과 수영에서는 단 한 명의 선수도 결선 무대조차 서지 못했다. 박태환(27) 선수는 주종목인 자유형 400m 결선 진출에 실패했고, 자유형 200m와 100m에서는 모두 예선 탈락하며 조기에 귀국했다. 육상에서도 100m와 멀리뛰기, 높이뛰기 등에서 결선 진출 또는 한국 신기록이 기대됐으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 부산시체육회 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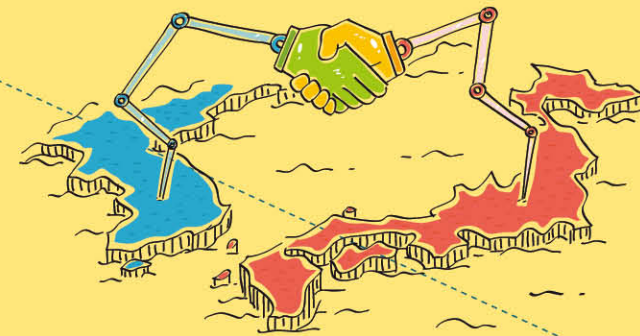
전문성 갖춘 위원장과 위원으로 운영



지난 7월 19일(화) '부산시체육회 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이 개최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서병수 회장을 비롯하여 10개 위원회별 위원장 및 위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체육회 서병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통합원년을 맞이해서 시체육회는 부산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여서 시민건강을 키우는데 주력하여야겠다. 그리고 차세대 선수들을 계속 발굴해서 부산체육의 미래를 키우며 좋은 선수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의 이름으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될 예정이다."며 "부산시에서도 체육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 위원회별 구성(10)

- 운영위원회      송규정 위원장
- 생활체육위원회      박희재 위원장
- 재정위원회      조성제 위원장
- 학교체육위원회      신정택 위원장
- 여성체육위원회      최명희 위원장
- 스포츠교류위원회      유재진 위원장
-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정철원 위원장
- 경기력향상위원회      박수관 위원장
- 임원심의위원회      -
- 스포츠공정위원회      -



# 부산 - 후쿠오카 청소년스포츠교류대회

스포츠를 통한 국제적 교류로 한-일 우호 증진

지난 8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부산시 일원에서 '2016 부산-후쿠오카 청소년스포츠교류대회'가 개최됐다. 1989년 행정협정도시의 인연을 맺은 후쿠오카시와 시체육회 간의 교류협약에 따라 1992년부터 25년째 양 도시를 오가며 매년 순환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배구, 배드민턴, 세일링, 정구, 탁구 등 5개 종목으로 개최되었고, 선수·지도자·임원·운영요원 등 약 300여 명이 참가했다.

유재진 부산광역시선수단장은 "매년 교류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문화체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정정당당한 경기를 통해 우정을 쌓아오고 있다. 이번 대회가 미래지향적이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는 발전적인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두 도시의 아름다운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서 가와베 히로유키 공익재단법인 후쿠오카시스포츠협회장은 "2016년은 올림픽이 열린 해이기도 하여 세계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리우의 열기와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지금, 한국과 일본의 우수한 스포츠 꿈나무들을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 선수들에게도 큰 자극제가 될 것이며 매우 뜻깊은 일이다. 선수 여러분들은 평소에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여 경기기술 습득과 국제적 교류를 경험하기 바란다."고 답사를 전했다.







##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부산 중·고등학교 130여 개 팀  
1,700여 명 참가



시체육회 박희재 부회장의 개회사 장면

시체육회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사회적 함양을 위해 지난 7월 26일(화)부터 29일(금)까지 나흘간 을숙도생태공원 및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부산 중·고등학교 130여 개 팀, 1,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6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소년 축구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한 팀당 18명의 인원을 구성해 학교별 단일팀으로 참가했으며, 남자 중·고등부 48개 팀 864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대회는 첫째 날 예선경기를 시작으로 둘째 날 8강전, 준결승전, 결승전 경기가 토너먼트전으로 치러졌다. 선수들은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도 탁 트인 경기장을 힘차게 누비며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시체육회 박희재 부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육활동을 통한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Football

우승팀 talk, talk



동양중학교 송한준 체육 교사

더운 날씨에도 학생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장·교감 선생님께서도 먼 길까지 찾아와 응원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탁 트인  
현장 누비며  
축구 열전  
펼치다**

현재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축구 위주로 연습을 했고, 방과 후 축구동아리를 통해서도 축구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수업 후 아이들이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는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 학생들이 1·2학년 때부터 방과 후 축구동아리와 클럽리그전에 참가해 왔습니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해서도 생활체육으로 축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대회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공부와 운동을 겸하여 더 좋은 활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기장고등학교 3학년 백인태 학생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마음을 비우고 대회를 치렀습니다. 평소 점심시간, 때맞춰서 축구를 한 것이 다였고 연습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팀워크가 좋았고 예상 외의 결과라서 기분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운동 실력도 향상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뿌듯한 마음입니다.



고등부 농구,  
동아고 우승 탈환!



이틀간 고등부 16개 팀이  
열전을 벌인 결과,  
동아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상배와 상장, 부상으로  
도서문화상품권을 전달받으며  
기쁨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동아고등학교 박창욱 체육교사

동아고등학교는 체육부가 있는 체육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로 일반 학생들이 기초체력을 준비해서 체육학과로 가기 위한 대학 입시제도 맞춤형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항상 우승입니다. 클럽대학 청소년 체육대회 초창기에 동아고등학교가 2년 연속 우승하였다가 지금 2년 연속 3등을 하고 있기에 다시 우승을 탈환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도 모여서 계속하여 팀 훈련, 개인훈련으로 쉬어가며 시합을 하였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부는 보통 학업에 집중을 해야 하는 입시제도 때문에 대부분 토너먼트 대회로 끝나는 대회가 많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재미와 활력을 찾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인권이 중요시되다 보니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선생님들이 위축되는 부분도 있어 '선생님들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의문점도 듭니다. 부산은 우리나라의 두 번째 도시입니다. 부산시 및 구·군청이 체육에 투자하는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 교류전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가 잘 되는 나라가 강대국이듯이 청소년의 생활체육에 대한 투자가 부산에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Basketball



# Bowling



볼링 종목,  
Two Strike 날리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남·여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참가해 각자의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했던 볼링경기는 청소년 체육대회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축구, 농구와 달리 여학생들도 함께 출전하였고, 학생들과 일반 여성부의 번외경기가 진행되어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됐다.

항도중학교 신성범 교사

저희는 개발활동이라 해서 매월 첫 번째 금요일마다 학교에서 3교시까지만 수업을 합니다. 4교시부터는 명장동에 있는 삼성볼링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세 게임씩 치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스포츠클럽 볼링대회로도 진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학생들의 안전 문제, 비용, 시간적 문제로 올해는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학교체육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은 교사와 학생들이 교감할 수 있게 같이하는 게임으로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대회 시간을 늘려주고, 대회 개최 시에는 교사들이 부득이하게 수업을 못 하게 되더라도 부담이 없는 대회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방학 기간은 공부에  
밀려 운동할 시간이 부족했던  
학생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최고의 적기가 아닐까.  
대회라는 명목으로 승부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경쟁력을 습득하고,  
이를 준비하는 동안 서로 배려와  
협력 정신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청소년들이 책상 앞에서 책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상으로 값진  
기회가 되었으리라 본다.





# 콜핑 빙상실업팀 창단

## 부산시 최초 동계종목 실업팀 창단 결실

시체육회는 지난 7월 15일(금), 부산광역시청에서 서병수 회장, 시체육회 임원, 회원종목단체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수 국내 스포츠 브랜드인 (주)콜핑(박만영 회장) 빙상실업팀 창단식을 개최했다.



### 선진 체육환경 조성사업에 따른 결과

이번 실업팀 창단은 동계종목 육성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체육회와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선진 체육환경 조성 사업으로 만들어 낸 결과다. 부산지역 체육 분야 일자리 창출 및 부산 출신 우수 선수 역외 유출을 방지, 초-중-고-대-실업팀 연계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콜핑 빙상실업팀을 창단하게 되었다. 콜핑 빙상실업팀은 초대 감독으로 선임된 이승훈 감독과 국가대표 출신인 박진환 선수, 김정민 선수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선수를 추가로 영입할 계획이다. (주)콜핑 박만영 회장은 "동계 종목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서 빙상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수 회장의 인사말씀

###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자 희망

서병수 회장은 "시민들의 건강, 문화예술의 발전 등 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체육 환경을 개선하고 팀 창단을 위해서 힘과 마음을 모으는 것이다. 부산의 인구에 비해서 체육과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체육은 기업에도 물론이고 사회적·국가적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로 알아야 교감과 투자가 되고, 관광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부산을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체육은 많은 공헌을 한다. 기업도 크게 성장하며 부산이라는 도시를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경쟁력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박만영 회장은 "세계에서 최고의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새 희망을 주는 것 같고, 부산의 최초 빙상 실업팀 창단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라고 생각이 된다. 먼저 스포츠가 모든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올해 콜핑은 창립 33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부산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결정하게 되었다. 아시안시피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 빙상 종목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며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은 "우리 부산은 동계종목 육성에는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이번 콜핑 빙상팀 창단과 현재 진행 중인 남구 빙상장 건립이 완료되면 향후 부산의 동계종목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인색해진 분위기이지만,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향후에도 많은 실업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콜핑 박만영 회장에게 선수단기 전달





# 필승 다짐하는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 전달

서병수 회장,  
부산체육고등학교 격려 방문

지난 7월 15일(금)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목표로 강화훈련 중인 부산체육고등학교 선수 및 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해 시체육회 서병수 회장의 '격려 방문'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태권도, 세팍타크로 등 선수단 격려 및 격려금 전달식으로 마련됐다.



## 새로운 40년을 맞는 부산체고

시체육회 서병수 회장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을 해서 '제97회 전국체전'이 올해는 뜻깊은 경기가 되리라 본다. 예년과는 다르게 우리가 목표설정을 잘해서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면, 반드시 달성될 것이다."라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체육고등학교 강정일 교장은 "작년에 부산체고 개교 40주년을 맞았고, 올해는 새로운 40주년을 향하는 원년이다. 개교 이래 많은 분들이 학교를 방문해 주신 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이라 생각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체육고등학교는 교사, 교직원, 경기지도자를 포함하여 69명이 상주하며 경기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종목은 육상을 포함하여 25개 종목으로, 선수 206명과 임원 56명 등 총 362명의 선수단이 출전하게 된다. 세부 종목으로 육상, 체조, 에어로빅체조, 수영, 핀수영, 펜싱, 사격, 양궁, 역도, 복싱, 사이클, 유도, 태권도, 정구, 럭비, 탁구, 레슬링, 세팍타크로, 바이애슬론, 근대5종 등 총 20개 부, 25종목을 육성하고 있다.

## 전국체전 준비에 박차

최근 5년간 전국체전 성적을 살펴보면 2011년도 제92회 대회 때 2,158점을 획득하여 고등부 득점률 43%에 득점을 했고, 2012년도 51%, 2013년도 47%, 2014년도 53%, 2015년도 53.93%로 보이고 있다.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은 7,000점 이상을 획득하여 부산광역시 고등부 전력에 50% 이상을 기여하는 데 목표를 갖고 1차 강화 훈련에 전력으로 임하고 있다.

7월 24일부터는 2차 강화훈련에 돌입했다.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예상 성적은 출전선수와 감독, 지도자들의 분석 하에 이루어졌다. 금메달 15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34개로 7,143점을 획득하고자 목표를 두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다. 다관왕 기대주는 다이빙의 우하람 선수, 경영의 박근태·박예린 선수이다.

올해 체전에 임하는 부산체육고등학교의 선수단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끊임없는 갈망, 지속된 노력으로 하늘을 올려서 필승을 다짐하며 40년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40년을 향한 원년의 해에 필승을 다짐할 것을 목표로 두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 세팍타크로란?

말레이시아어인 '세팍(발로 차다)'과 태국어인 '타크로(볼)'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15세기경 동남아 궁정경기로 시작되었다. 방식은 매트 위에 두고 발로만 볼을 차 상대편 구역으로 공을 넘기며 점수를 얻는 경기로서 레구 이벤트, 팀 이벤트, 서클 등이 있다.

경기 방식은 여러 차례 수정되었으며, 1945년에는 코트와 네트를 갖춘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1965년에 아시아연맹이 결성되면서 동남아시아게임 종목으로 선정되어 세팍타크로는 동남아시아의 인기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에서 국내 최초로 공식대회를 개최하였고, 2000년부터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레구 종목을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하고 있다.

경기방법 중 레구 이벤트는 좌, 우측 전위 각 1명, 후위 1명, 총 3명으로 구성된 팀(후보 2명)이 네트 경기를 펼치는 것으로 손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사용할 수 있다. 팀 이벤트는 3개의 레구가 모여 리그 경기를 벌이는 방식을 말한다. 서클 이벤트는 원 안에서 패스를 주고받을 때마다 포인트를 얻는 방식의 경기를 말한다. 이렇게 5명이 원 안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서로 볼을 주고받으며, 누가 더 많이 차고, 난도 높은 기술을 쓰는지 겨루는 경기이다.







이 남 엽  
복구국민체육센터장  
퇴직 기념식



제2의 인생 펼쳐나기를 응원

이남엽 복구국민체육센터장은 1983년 부산시체육회에 입사하여 다양한 요직을 섭렵하였고,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복구국민체육센터장으로 재직했다. 재직 중에는 부산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등 많은 수상을 하였다.

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은 “뜨거운 열정으로 부산체육을 이끌었던 이남엽 복구국민체육센터장님의 퇴직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젊은 시절 청운의 꿈을 안고 부산체육에 헌신한 이래로 부산시체육회에서 운영팀장, 학교체육지원팀장, 훈련부장으로 그리고 복구국민체육센터의 센터장까지 반평생을 부산체육의 현장에서 몸을 바친 이남엽 센터장의 영예로운 퇴직에 진심을 다하여 축하하드린다. 퇴직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계획한 모든 것들을 얽매임 없이 실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 선상에서 이남엽 센터장의 전진을 축하하며 제2의 인생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센터 관계자들과  
석별의 정 나누며  
뜻깊은 마무리

지난 6월 29일(수) 시체육회가 수탁 운영하고 있는 복구국민체육센터의 '이남엽' 센터장의 퇴직 기념식이 마련됐다. 기념식은 대한체육회와 시체육회의 공로패 전달에 이어 재직 기념패와 기념품 전달로 진행됐다.



(좌) 이남엽 복구국민체육센터장  
(우) 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의 공로패 수여 기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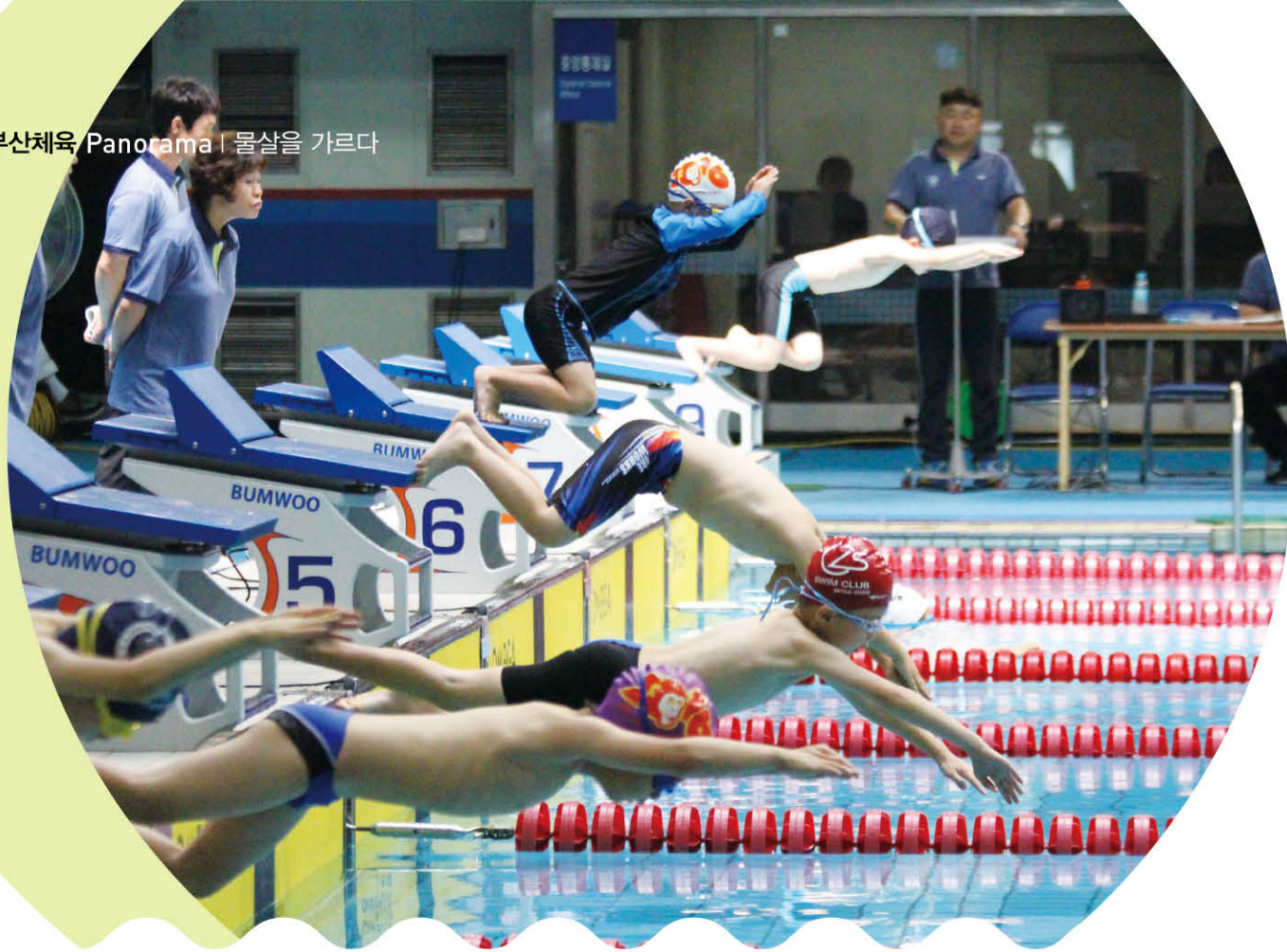


이남엽 복구국민체육센터장의 퇴임사 장면

부산시민의 건강이 시작되는 곳

현재 복구국민체육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수영특강을 개설하고, 수영장, 헬스장, 스튜디오,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밖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평가를 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국민의 체육복지 서비스인 '국민체력 100'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복구국민체육센터는 체육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복구민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멋진 스포츠맨십을 체험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에 힘쓰고 있다.





### 학생 건강 증진 위한 도움닫기

이번 대회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도모하여 건강 증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열렸으며, 입상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수영영재교실 또한 모집 완료하였다. 이는 선착순 3개반 30명을 모집하여 9월부터 차기 대회 전까지 운영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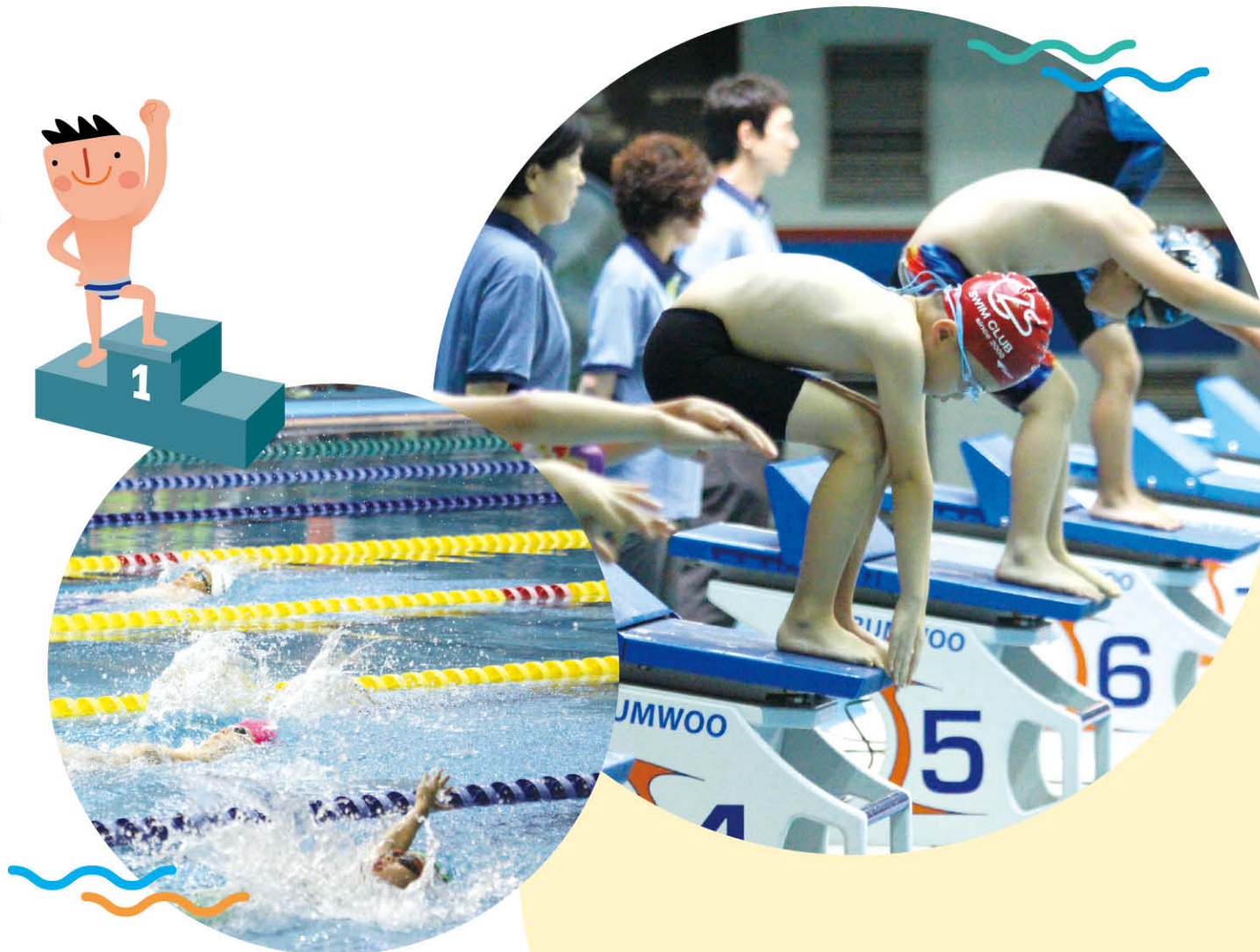
시체육회는 수영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하여 부산의 대표선수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영영재교실을 작년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그 결과 올해 5월에 개최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도 다수의 학생들이 입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냈다. 이에 올해부터는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추가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부산 체육 발전 기반 마련에 큰 역할

송미현 사무처장은 "2013년부터 시작한 이 대회는 어린이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 체육 꿈나무 발굴·육성으로 부산 체육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회는 한창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건강한 맘을 흘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올바른 인성과 두터운 우정을 쌓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수영은 부산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등 총 1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우리 체육회에서도 작년부터 수영영재교실을 운영하며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을 발굴하고,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계적인 선수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맘 흘려 길러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모두가 좋은 기록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부산 수영 꿈나무들의 축제 활짝

# 제4회 어린이 왕중왕 수영챌린지대회



지난 7월 23일(토) 부산지역 144개 초등학교, 약 600명이 참가한 '제4회 어린이 왕중왕 수영챌린지대회'가 사직실내수영장에서 개최됐다. 2013년 처음 시작하여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4개 부문(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64개 세부종목으로 진행됐다.

### "다양한 운동으로 건강한 학생이 될 거예요!"

지난 7월 22일(금) '수영영재교실 1기 수료식' 행사에 참가한 센텀초등학교 6학년 황영준 학생은 '제4회 어린이왕중왕 수영챌린지대회'에도 참가했으며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금·은·동메달을 획득한 이력이 있다.

그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부모님과 함께 취미생활로 일주일에 3회 이상 수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산의 수영 영재 프로그램을 보고 참가하였고, 작년에는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영 영재교실 1기 교육과정에 참가해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선수로 등록해서 시작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운동은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티볼, 농구, 핸드볼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 여러 종목에 걸쳐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지만 지금은 한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운동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운동에 관해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한 뼉 더 성장했던 어울림의 시간 생활체육 안전교실

이번 여름, 초·중·고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스포츠가 이벤트처럼 풍성하게 펼쳐졌다.

생활체육 안전교실 및 레크리에이션 교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청소년 야외 스포츠 교실은 참가한 청소년들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기회가 됐다.

뜨거운 여름을 성장의 시간으로 보낸 그들의 이야기를 시원하게 전한다.

# 01

생활체육 안전교실  
야외 스포츠 교실

가족과  
함께라서  
즐거움도 두 배!

지난 7월 16(토), 17(일), 23(토), 24(일) 4일간 경상남도 산청군 일원에서 '2016 생활체육 안전교실(청소년 야외 스포츠 교실)'이 펼쳐졌다. 이번 스포츠 교실은 초·중·고등학생 및 가족구성원 등 총 36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프로그램은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야외 스포츠인 오리엔티어링과 흐르는 강 위에서 신나게 물살을 헤쳐 나가는 래프팅체험 등 가족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 실내프로그램으로 대체하려 했으나, 참가자 전원이 악천후 속에서도 참가하기를 희망해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이는 색다른 추억이 되었다. 비로 인해 강 수위가 높아져 스릴 만점의 래프팅을 체험하여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이번 교실은 누구나 별도의 전문 교육 없이 쉽게 즐기며, 사고 위험도가 높은 종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야외스포츠 활동을 통해 친구 및 가족 간의 협동심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 02

지난 7월 23(토)부터 29(금)까지 7일간, 락오디세이 클라이밍센터(동래점, 하단점)에서 '2016 생활체육 안전교실(청소년 스포츠 클라이밍 교실)'을 개최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산악 등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암벽등반을 실생활 가까이로 옮겨 와 건물 벽면이나 암벽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합판, FRP(섬유강화플라스틱) 등 인공 시설물에 인공 홀드를 설치·구현하여, 손과 발만을 이용해 이동하는 스포츠로서 땀 흘리며 어려운 코스를 오르고 난 후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이번 교실은 집중력 및 체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장비 사용법을 익히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부상 위험이 적어 참가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이번 스포츠 클라이밍 교실은 기초 이론부터 기본자세, 볼더링(낮은 암벽에서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르는 방법) 이론 및 실습 등 초보자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실은 초·중·고등학생이 참가하여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내 스포츠 참여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생활체육 안전교실  
스포츠 클라이밍 교실

기초체력과  
인내심 향상에  
효과적!



이어서 지난 8월 17일(수)부터 18(목)까지 양일간, 부산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과 가족 구성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16 레크리에이션 교실'이 개최됐다. 이번 교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레포츠 체험 및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놀이문화 보급 및 여가 활동의 기회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프로그램은 카약, 고무보트,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등으로 구성되어 참가한 가족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었다.

가족과 함께 평소 접해보지 못한 여름철 체육활동을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해양 레포츠 교실이 참가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기의 해양 스포츠 참가는 지구력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 장비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지적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서로 협동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넓고 푸른 바다에서 꿈과 희망을 펼쳐보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감을 쌓을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03

2016 레크리에이션 교실

넘어지고  
물에 빠지며  
배우는 재미!



News Briefing  
체육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News Briefing 코너는 부산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의 주요 체육정책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프로스포츠 구단 자생력 확보의 길 열리다

**프로구단 연고지 경기장 장기 임대(25년 이내) 가능**  
경기장 연간 사용료 10/1000에서 10/10000으로 산정 완화, 감면 등(2016.08.0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지난 2월 3일(수)에 공포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7월 2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은 ▲프로구단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유의 연고 경기장에 대해 수익계약으로 장기 임대(25년 이내) 가능, ▲시설이 낙후된 경기장은 프로구단이 직접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시·도민구단에 대한 지자체 등의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 ▲프로 경기장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되면 시설 설치비 지원 가능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정하게 하는 한편 ▲지자체의 장이 프로스포츠단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감면·감액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프로스포츠 구단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지역 프로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결국에는 국민이 수준 높은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코리아팀 응원단' 발대식 개최

**50개 팀 210명 참가, 8. 11.~8. 20. 리우·평창올림픽 응원여행(2016.08.0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2016년 리우하계올림픽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응원하는 '코리아팀 응원단'의 발대식을 8월 6일(토) 상암동 한국방송(KBS) 미디어센터에서 개최했다. 코리아팀 응원단은 리우와 평창올림픽 응원을 위해 국가대표 선수단과 대한민국 응원 메시지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공유하고, 온·오프라인의 소통 활동으로 그 응원 열기를 2018년 평창올림픽까지 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응원단 참가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34개 팀을 선발하였으며, 여기에 슈퍼스타케이(K) 출신 가수 유승우, 개그우먼 이수지, 국가대표 셰프 이원일, 치어리더 김연정 등이 참가하는 기획팀 16개 팀이 더해져 총 50개 팀, 약 210명이다.

한편, 응원단은 리우하계올림픽 개최 기간 중인 8월 11일(목)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출발하여 8월 20일(토)까지 평창을 거쳐 강릉으로 올림픽 응원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여행 도중에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는 동영상이나 사진, 이미지 등을 누리소통망(SNS)상 해시태그를 붙여 '코리아팀'으로 올리고, 평창으로 가는 추천 여행경로, 숙박 장소, 가볼 만한 맛집, 역사문화 등을 소개하는 '응원여행 지도'를 만들고 열정과 설렘, 공감이라는 주제별로 '인디밴드 공연', '길거리 응원전', '플래시몹 댄스', '바이크 응원',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야외수영대회 운영 기본안전 지침 마련

3

####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대회 및 프로경기 운영 안전지침 점검(2016.08.0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난 8월 6일(토) 사망자 2명이 발생한 '제9회 여수 가막만 바다수영대회'와 관련해 이 대회의 안전관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과 함께 대한수영연맹 산하 연맹의 야외수영대회 운영을 위해 기본안전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한수영연맹과 산하 시도, 시·군·구 연맹에서는 대회 개최 시 대회 규모를 고려한 안전장비의 설치와 적정 안전요원의 배치 규모 등 참고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대회 주관 연맹이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대회를 주관하는 연맹이 임의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경우 안전대책을 형식적으로 마련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제9회 여수 가막만 바다수영대회에서 일어난 사고를 계기로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과 함께 야외수영대회의 안전운영을 위한 기본 지침 마련에 협의했다. 문체부는 이번 기본안전 지침에 사전준비 운동의 실시와 경기 전 국제규정에 따른 수온 점검 의무, 참가자 규모에 따른 적정 안전요원 배치 수, 응급구조차량 준비 등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해 대한수영연맹과 산하연맹에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수영대회 이외에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모든 경기단체가 개최하는 다른 대회도 기본적인 안전지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 한국 스포츠, 창조경제 날개를 달고 퀀텀점프 준비

4

#### 스마트 스타디움 구축, 융·복합 스포츠 스타트업 육성, 스포츠 아카데미 신시장 창출 및 지능정보·데이터 분석 기반 스포츠·레저 산업 육성(2016.08.0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8월 9일(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제1회 창조경제 융합 스포츠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스포츠 산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 미디어,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을 뿐 아니라, 경쟁을 전제로 하는 스포츠의 특성상 신소재·나노·바이오 등 과학기술이 적용된 첨단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다. 또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복합 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그 외연을 더욱 확장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이에 문체부와 미래부는 지난 6월 16일(목) 실장급 협의에서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 특화산업 육성 등 창조경제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출된 창조경제 성과를 스포츠 산업에도 이식하여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방안을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창조경제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기반시설과 사람,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창조경제의 융합을 통한 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스포츠 강국을 넘어, 민간의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간 중심의 스포츠산업 강국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 생활체육 참여자, 절반 이상(57.3%) 부상 경험

5

#### '2015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 발표(2016.08.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2015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만 19세 이상 13,397명 대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체육활동까지 포함한 생활체육 참여자 중 절반 이상(57.3%)이 부상을 경험하였으며, 부상 경험률이 높은 종목은 축구(71.3%), 격투기(66.7%), 검도(66.7%), 스노보드(64.6%), 농구(64.5) 순이었다. 주요 부상 부위는 발목(25.4%), 무릎(23.1%), 상반신(20.1%) 순이었다. 또한 부상 종류는 염좌(51.7%), 통증(51.0%), 찰과상(21.6%) 순이었으며 부상에 따른 치료기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1.3%가 2주 이내의 치료기간을 갖는다고 답했다.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부상 발생자의 절반 이상(55.5%)이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를 하였으며, 의사진료 및 치료(31.3%),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상자의 73.9%는 치료비용을 자부담으로 처리하였으며, 치료비는 개인 부담 금액 기준 1인, 1건당 54,7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안전 취약 그룹과 종목별 취약 요소, 체육시설의 취약점 등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안전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발표한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대상별 안전교육과 종목 특성을 반영한 지도자 교육, 스포츠안전 캠페인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초등 수영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교사 양성연수 추진

6

#### 핵심 선도교사 양성을 통해 실용적인 생존수영 교육운영 확산 기대(2016.07.26.)

교육부(교육부장관 이준식)와 학교체육중앙지원단(단장 김기철)은 초등학생 수영 실기교육의 활성화와 단위학교의 수영 실기교육 지도 역량 저변 확대를 위해 초등 교사를 수영 실기교육 최고의 전문가로 육성 지원하고자, 수영실기교육 담당교사 또는 체육 담당 교사 중 수영 실기능력이 뛰어나며, 수영교육에 열정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수영교육 핵심선도 교사 양성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선도교사 양성연수는 기존의 영법과 이론 중심의 강습에서 탈피하여 생존수영과 실기 중심으로 차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고 실시된다.

수영 핵심선도교사의 역할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초등 수영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워크숍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수영 지도 역량을 넓히는 한편, 관내 학교의 수영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자체연수 및 중앙교육연수원과 시도교육청별 교육연수원 수영 관련 연수 시 강사로 활동하게 되어 실용적인 초등 수영 실기교육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2014년 초등학생들의 수영 실기교육 활성화 시범운영을 통해 올해 145개 교육지원청 35만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 수영 실기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도교사 양성과 관내 학교의 수영 담당 교사 대상의 전달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실용적인 수영교육 지도역량 강화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뜨거웠던 휴가 똑똑한 마무리 자외선에 지친 피부 되살리는 SOS



짧지만 강렬했던 여름휴가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다. 하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어졌던 물놀이는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손상된 피부를 되살리고 생기까지 불어넣는 손쉬운 방법을 소개한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해본다면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 되살리는 법

즐거웠던 여름휴가 뒤에 찾아오는 대표적 질환으로는 피부손상을 빼놓을 수 없다. 휴가 동안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된 피부는 강한 자극을 받은 상태이므로 피부염과 화상은 물론이고, 기미, 주름, 탄력 저하, 모공 확장 등 다양한 문제 요소를 안고 있는 셈이다. 제때에 관리해주지 않으면 심한 피로감을 안고 있는 피부의 노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방치된 피부 상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진정시켜주고,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는 새로운 세포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것이다. 이때, 선블리 피부를 건드렸다가는 자칫 색소 침착이나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여름휴가 후 반드시 지켜야 할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Q.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벗겨졌다면?

A. 붉게 달아오른 피부는 먼저 온도를 낮춰주는 게 중요하다.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만든 스킨을 화장 솜이나 거즈에 적셔 자극받은 부위에 덮어주면 열기를 식힐 수 있다. 이때 알코올 성분이 많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오이, 우유, 해초 등을 활용해 팩을 해 줘도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된다. 단, 팩을 한 후에는 찬물로 조심히 헹궈내고, 비누는 사용하지 않는다. 손으로 피부를 직접 만지는 행위도 피해야 한다. 이미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진 경우라면 바로 병원을 찾아 화상치료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

## Q. 휴가 때처럼 자외선차단제를 발라야 할까?

A. 휴가 직후 피부가 검게 탄 것처럼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래의 색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꾸준히 자외선차단제를 발라줘야 한다. 휴가 때 SPF 50 이상의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했다라도, 휴가 후에는 순한 제품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 SPF 30 정도의 제품을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 피부를 보호하면 된다. 색소가 침착되기 쉬운 눈 주위, 코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 Q. 머리카락도 자외선에 손상된다는데?

A. 바다나 수영장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바닷물이나 자외선에 머리카락이 손상돼 휴가 전보다 푸석푸석해지고 뽀뽀해질 수 있다. 이때는 모발 재생을 돕기 위해 헤어팩을 사용하면 된다. 헤어팩을 할 때는 두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자외선은 두피에도 화상을 입힐 수 있는데, 두피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양산이나 모자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Q. 회복 후에도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면?

A. 집에서 피부 잡티나 피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각질제거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피부가 더욱 자극을 받아 예민해질 수 있다. 열기가 가라앉은 피부는 앞에서 언급한 천연제품이나 평소에 사용하던 보습크림, 알로에 젤 등을 이용해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충분하다. 꾸준한 관리로 피부가 회복된 후에도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로 심한 운동은 삼가고, 찜질방이나 사우나처럼 온도가 높은 곳도 피하도록 한다.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 있는 두부, 새우, 쇠고기, 닭고기, 울무 등의 식품도 햇빛에 손상된 피부를 빨리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다.

## 지친 피부를 위한 천/연/팩 DIY



### 모공에 좋은 달걀팩

- ① 달걀 하나를 준비해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고, 각각 밀가루를 섞어 개어둔다.
  - ② 흰자는 T존 부위에 바르고 나머지 부위에는 노른자를 바른다.
- ※ 달걀 흰자는 모공 수축을 돕고, 노른자는 영양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다. 여드름이 많은 피부에는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도록 한다.



### 열을 가라앉히는 감자팩

- ① 감자 하나를 강판에 간 후 같은 양의 밀가루와 꿀 한 스푼을 넣어 섞어준다.
  - ② 얼굴, 팔, 목 부분 등 햇빛에 오래 노출된 부분에 발라준다.
- ※ 차가운 성질의 감자는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고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단, 싹이 난 감자는 독성의 우려가 있어 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달아난 입맛 살리는 건강 밥상 잘 먹으면 약이 되는 슈퍼 푸드, 토마토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의사는 얼굴이 퍼렇게 질린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토마토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강식품이다. 7월부터 9월까지 제철을 맞은 토마토는 요리 방법에 따라 더욱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다. 토마토의 효능과 조리법을 소개한다.

### 하루 2개 토마토, 건강의 시작

잘 익은 토마토의 붉은 색은 리코펜이라는 성분에 의해 나타난다. 리코펜은 항암제로 알려진 카로틴보다 강력한 항암물질로, 암 위험인자가 형성되기 전에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액에 지나치게 축적되는 현상도 방지해주는데, 이로써 혈관을 부드럽게 해 심혈관질환을 예방한다.

칼륨도 토마토를 대표하는 성분이다. 토마토의 칼륨은 몸속에 쌓인 염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성분이다.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고혈압 예방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도 다양 함유했다. 하루에 토마토 2개만 먹어도 비타민 C 1일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는 비타민 K나 피부 미용효과가 있는 비타민 E도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이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 있는 식이섬유는 대장 작용을 활발하게 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요리해서 먹으면 더 맛있는 토마토

토마토의 리코펜은 열에 강하고 기름으로 조리했을 때 인체에 더욱 잘 흡수되는 성질을 지녔다. 이 때문에 토마토는 날것으로 먹기보다는 익혀 먹는 게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거나 토마토주스에 꿀을 첨가해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토마토의 효능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

토마토는 파스타 소스, 샐러드, 볶음, 주스, 수프, 케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고, 다른 식재료와도 잘 어울려 활용도가 높다. 이 중에서도 간편한 방법으로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토마토 달걀 볶음과 토마토 냉수프를 소개한다. 다른 재료와 어우러져 상큼한 맛을 선사하는 토마토로 건강도 챙기고 활력도 충전해보자.

달걀과 간편하게 볶아낸 토마토는 든든하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해 한 끼 식사로 부족함이 없다. 반면, 열량은 낮아 다이어트 중인 이들에게도 환영받는 음식이다.

#### <재료>

토마토 1개, 달걀 3개, 쪽파 한 쪽, 올리브유, 소금, 후추 약간씩

#### <레시피>

- ① 토마토는 아랫부분에 십자로 칼집을 내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식혀 껍질을 벗겨둔다.
- ② 달걀은 풀어서 소금으로 간해 놓고, 대파는 송송 썰어둔다.
- ③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풀어 놓은 달걀을 넣어 중간불로 부드럽게 익힌다.
- ④ 달걀이 반 정도 익으면 토마토를 넣고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 하고 쪽파를 마지막에 넣는다.
- ⑤ 기호에 따라 버섯, 아스파라거스 등을 넣어 함께 요리해도 좋다.

### 토마토 달걀 볶음



### 토마토 냉수프



'가스파초'로 불리는 토마토 냉수프는 40℃의 여름을 견뎌야 하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음식이다. 폭염으로 지친 우리네 입맛에도 잘 어울린다.

#### <재료>

토마토 3개, 파프리카 1개, 오이 1/4개, 마늘 1쪽, 얼음 1컵, 레몬즙 1.5 TS, 올리브유 1 TS, 콜 2 TS, 소금 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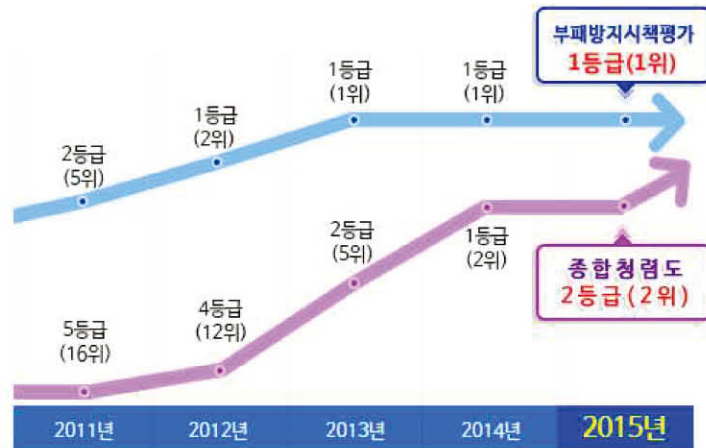
#### <레시피>

- ① 꼭지를 제거한 토마토는 아래쪽에 십자로 칼집을 내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식혀 껍질을 벗겨 큼직하게 썬다.
- ② 파프리카는 씨를 제거해 큼직하게 썰고, 오이는 껍질을 벗긴 뒤 한입 크기로 썬다.
- ③ 손질한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마늘, 레몬즙을 넣고 믹서기에 갈아준다. 마지막에 얼음을 넣고 한 번 더 갈아준다.
- ④ 먹기 직전 나초칩이나 크루통(구운 식빵조각)을 얹어낸다. 삶은 소면을 말아내면 한 끼 식사로도 훌륭하다.



함께하는 청렴실천, 신뢰받는 부산시정을 위한  
**부산시 청렴추진 현황 및 신고센터 안내**

**부산시 청렴추진 현황**



- ❖ **2015년 부산시 청렴수준**
-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
  - ▶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전국 최고
  -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위한 「고객불만제로시스템」 운영**

공사 및 용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설치위치 : “부산시 홈페이지” 배너  
 바로가기 <http://crm.busan.go.kr/ZERO>
- 서비스 내용 : 업무처리 절차별 안내, 내가 신청한 업무보기, 업무관련 의견쓰기, 자주 묻는 질문, 자료실 등



**청렴부산 SNS 운영** ▶ 5종 “청렴부산” 을 검색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청렴도시 부산을 만들어 갑니다.

- ▶ 부산의 청렴활동 소식 실시간 제공
- ▶ 청렴부산 시민참여 온·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 ▶ 부산 맛집 및 즐길거리 소개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센터 (익명신고)**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신고하여 주세요.

- ▶ 전 화 : 080-777-1398 (팩스 051-888-1679)
- ▶ 인터넷 : 시 홈페이지 부패행위신고 (<http://busan.go.kr>)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해피콜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해피콜 IH 진공냄비 “이제 스팀으로 조리하고 진공으로 보관하세요”**

해피콜 IH 진공냄비는 아르마이드 특수 공법이 적용된 고순도 알루미늄 통주물 본체에 첨단 IH기능까지 접목시켰으며, 스테인레스 스틸 뚜껑과 손잡이에는 트리플 스팀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오래도록 우려내는 사골은 물론이고 일반 요리에서부터 아이들 이유식까지 다양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압력냄비와 달리 조리 중 자유롭게 뚜껑을 여닫을 수 있으며, 조리 후 뚜껑을 덮은 상태로 놓아두면 식으면서 자동으로 진공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영국 텐저린사가 디자인한 절제된 곡선과 직선, 스테인레스 스틸과 고순도 세라믹필의 조화는 주방 어디에서도 은은한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습니다. 해피콜 IH 진공냄비는 이렇듯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과 디자인, 첨단 설비를 통해서만 구현 가능한 핵심 기술력과 품질력으로 탄생했습니다. 이제 스팀으로 맛있게 조리하고 진공으로 편리하게 보관하십시오.



엘린네트워크 **5人** 의료진이 뭉쳤다.



# 엘린의원

진료  
과목 **피부과·성형외과**

서면점 | 덕천점 | 구서점



## 진료내용

눈 / 코 / 가슴 / 지방 / 종아리 / 기미 / 화이트닝 / 주름 / 탄력  
리프팅 / 보톡스 / 필러 / 윤곽주사 / 물광 / 비만관리 프로그램

“ 부산체육회원들을 위한 특별한혜택 ”  
이번 가을에 만나보세요.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엘린의원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T1666-7107** **N** 엘린의원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스타자동차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Mercedes-Benz

## 스타자동차

전시장 해운대 051-709-630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우동)  
금정 051-710-2369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울산 052-701-0503 울산 남구 삼산로 83(달동)  
StarClass 인증중고차 051-710-2369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서비스센터 해운대 051-797-9619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87(우동)  
금정 051-775-9811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울산 052-705-7203 울산 남구 남중로 74번길 19(삼산동)  
기장 051-792-7410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1047-10  
대표번호 1688-2369(Benz) www.mbstar.co.kr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 1,991cc, 공차중량 : 1,740kg, 자동9단), 복합 연비 : 10.8km/l (도심연비 : 9.6km/l, 고속도로연비 : 12.6km/l), 등급 : 4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 1,991cc, 공차중량 :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 10.3km/l (도심연비 : 9.3km/l, 고속도로연비 : 12km/l), 등급 : 4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 169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B<sup>n</sup> 대선주조**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대선주조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wards 2016 2016 사회공헌대상



발콜 36mg  
마테자 0.18mg  
함유



대선주조 모델 박기량

사람과 기술, 부산  
문화로 향하는

똑같은 한 걸음도  
무게감은 다르다!



인정엑스포?



VS 등록엑스포!

## 사상 최대 진짜 엑스포!

민선 6기 부산시가 추진하는 진짜 EXPO, 사상 최대의 국제행사로 국가적 위상부터 다릅니다.

# BUSAN WORLD EXPO 2030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엑스포, 등록엑스포란?

엑스포는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한 이익 증대, 인류에 발전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인류공동의 가치 실현, 인류가 이룩한 과학적, 문화적 성과와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국제 메가 이벤트입니다. 등록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에 속하는 큰 이벤트로 유,무형의 효과가 막대함이 입증되어, 국가간 유치경쟁이 치열합니다.

### 월드컵, 올림픽보다 월등한 '등록엑스포'

월드컵, 올림픽은 국가홍보와 브랜드 향상에 기여하지만, 등록엑스포는 주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자비로 국가관을 건설하므로 개최도시의 경제효과 창출이 막대합니다.

	월드컵	올림픽	등록엑스포
개최기간	1개월	16일	6개월
관람객	300만명	300만명	5,050만명
경제효과	11조원	12조원	49조원

### 2030 부산등록엑스포 개최(안)

기간 : 2030. 5. 1 ~ 10. 31(6개월간)  
장소 : 서부산 일원 350만㎡  
참가국 : 160개국(관람객 5,050만명 이상)  
개최효과 : 투자액 4조 4천억, 경제효과 49조, 일자리 54만개

	2010 상하이	2015 밀라노	2020 두바이
투자액	5.2조	4.3조	6.9조
경제효과	110조	63조	38조
일자리	63만개	15만개	28만개

경고: 저산소 음주는 건강이나 안전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